

보도자료
본 자료는 5월 31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30일(화)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거시경제] 동향·통계분석본부 홍성욱 연구위원 (044) 287-3192
[13대 주력산업]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박상수 연구위원 (044) 287-3830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2023. 5.

차례

요약	9
제1장 거시경제 전망	19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19
2. 대외 여건 전망	22
3. 2023년 국내경제 전망	32
<참고> 반도체 수출 부진이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50
<참고>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요인 분석	53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61
1.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동향	61
2. 2023년 하반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69
3.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78

표 차례

〈표 1-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23
〈표 1-2〉 세계 주요 권역 및 주요국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24
〈표 1-3〉 국제유가 현황	29
〈표 1-4〉 2022년 및 2023년 국제유가 전망(EIA 기준)	30
〈표 1-5〉 2023년 국제유가 전망	30
〈표 1-6〉 2023년 원/달러 환율 전망	32
〈표 1-7〉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33
〈표 1-8〉 민간소비 추이	34
〈표 1-9〉 민간소비 전망	36
〈표 1-10〉 설비투자 추이	37
〈표 1-11〉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38
〈표 1-12〉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40
〈표 1-13〉 설비투자 전망	40
〈표 1-14〉 건설투자 추이	41
〈표 1-15〉 건설투자 전망	43
〈표 1-16〉 수출입 동향	44
〈표 1-17〉 산업별 수출 증가율	47
〈표 1-18〉 가공단계별 수입	47
〈표 1-19〉 2023년 수출입 전망	49
〈표 1-20〉 대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53
〈표 1-21〉 대중국 주력 품목 수출 증가율 추이	54
〈표 1-22〉 대중국 수입 상위 5대 품목	55
〈표 2-1〉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세계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70
〈표 2-2〉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72
〈표 2-3〉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전망	73
〈표 2-4〉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75
〈표 2-5〉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77

〈표 2-6〉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80
〈표 2-7〉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84
〈표 2-8〉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87
〈표 2-9〉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89
〈표 2-10〉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91
〈표 2-11〉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92
〈표 2-12〉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93
〈표 2-13〉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94
〈표 2-14〉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95
〈표 2-15〉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96

그림 차례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20
〈그림 1-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21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추이	21
〈그림 1-4〉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22
〈그림 1-5〉 OECD 산업생산과 G20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24
〈그림 1-6〉 세계 주요국별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25
〈그림 1-7〉 세계 주요국별 소비자물가 및 근원 소비자물가 변화율 추이	26
〈그림 1-8〉 IHS Markit의 글로벌 제조업 PMI와 G20 경기선행지수 추이	27
〈그림 1-9〉 전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PMI(2022년 12월 대비 2023년 4월 현재)	27
〈그림 1-10〉 전 세계 제조업 주요 업종별 PMI(2022년 12월 대비 2023년 4월 현재)	27
〈그림 1-11〉 국제유가 추이	29
〈그림 1-12〉 원/달러, 달러인덱스 추이	31
〈그림 1-13〉 재화별 소비 추이	35
〈그림 1-14〉 민간소비와 실질GNI	35
〈그림 1-15〉 취업자 추이	35
〈그림 1-16〉 소비자 심리지수	35
〈그림 1-17〉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36
〈그림 1-18〉 가계대출 연체율	36
〈그림 1-19〉 설비투자 추이	38
〈그림 1-20〉 재고율과 자본재수입 추이	39
〈그림 1-21〉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40
〈그림 1-22〉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42
〈그림 1-23〉 건물건설 인허가·착공 추이	43
〈그림 1-24〉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43
〈그림 1-25〉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45
〈그림 1-26〉 수출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45
〈그림 1-27〉 지역별 수출 증가율	46

〈그림 1-28〉 수입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48
〈그림 1-29〉 반도체 수출 추이	50
〈그림 1-30〉 반도체 수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2001~2023년 1/4분기)	52
〈그림 1-31〉 대중국 가공무역 수출·입 추이	56
〈그림 2-1〉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추정	61
〈그림 2-2〉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추정	64
〈그림 2-3〉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추정	66
〈그림 2-4〉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추정	68
〈그림 2-5〉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79
〈그림 2-6〉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82
〈그림 2-7〉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85
〈그림 2-8〉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89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수출 부진 속 소비 회복세가 성장률 견인

○ 국내 실물경기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와 2022년 말부터 지속되어온 수출 부진이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으나 소비는 회복세 지속

- 내수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기계류 투자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미약한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

- 수출(통관 기준)은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에도 반도체 등 IT 경기 부진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

□ 2023년 세계경제: 불확실성 속에 제한적 성장 예상

○ 2023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정도 해소된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은행위기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잠재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

- 미국경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조치로 인플레이가 진정되고 있으나, 고용 여건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파산 위험성이 상존

- 일본 경제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 기조 유지에도 수요 약세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 동인이 미흡한 실정이며, 유로존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리 인상 속에서 인플레이션 진정 여부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 완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
- 중국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5%)를 달성할 것이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수출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외수에 의한 성장 동력은 미약할 것이 예상

□ 2023년 유가 및 환율: 유가 70달러대 후반, 환율 1,280원 내외 전망

- 2023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중국의 경기 회복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원유 수요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산유국의 감산 조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평균 배럴당 76달러, 연평균 배럴당 70달러대 후반 예상
- 2023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금융시장 리스크 해소 등 달러화 약세 요인과 수출 부진 완화 등 원화 강세 요인으로 상반기보다는 낮은 수준이 예상되면서 하반기 평균 1,263원, 연평균 1,280원 내외 수준 예상

□ 2023년 국내경제: 연간 성장률 1.4% 전망

- 2023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로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1.4%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지속 여부, 소비 개선세 지속 여부, 반도체산업 회복 시점 등이 추가적인 변수가 될 전망

□ 2023년 민간소비: 전년 대비 2.7% 내외 증가 전망

- 2023년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조한 소비심리, 주요 자산 가격의 하락, 실질소득 하락 등에 더해,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추세 등이 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투자: 설비투자 0.8% 감소, 건설투자 0.7% 증가 전망

- 2023년 설비투자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등 대외 여건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세,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되지만, 주택시장 위축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금시장 경색,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전망

□ 2023년 수출입: 수출 -9.1%, 수입 -10.2% 감소, 무역적자 353억 달러

- 2023년 수출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대(對)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약 9.1%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수입은 국제유가와 수입 중간재 등 주요 수입재 가격 하락의 영향과 환율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0.2% 감소 예상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4.1	3.0	2.2	2.6	1.0	1.7	1.4
민간소비	3.7	4.1	4.5	4.3	3.4	2.1	2.7
설비투자	9.0	-6.4	5.6	-0.4	4.3	-5.9	-0.8
건설투자	-1.6	-4.6	-2.6	-3.6	1.2	0.2	0.7
통관 수출	6,444 (25.7)	3,505 (15.6)	3,331 (-2.4)	6,836 (6.1)	3,060 (-12.7)	3,156 (-5.2)	6,216 (-9.1)
통관 수입	6,151 (31.5)	3,614 (26.4)	3,699 (12.4)	7,314 (18.9)	3,353 (-7.2)	3,216 (-13.1)	6,569 (-10.2)
무역수지	293	-109	-369	-478	-293	-60	-353

자료: 산업연구원.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동향

□ 수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전년동기비 14.3% 감소

○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부진하여 전년동기비 14.3% 큰 폭 감소

- (기계산업군) 자동차(27.3%), 조선(19.7%) 일반기계(0.2%) 모두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16.3% 증가

- (소재산업군) 상반기 수입수요 감소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36.7%) 증가에서 큰 폭의 감소(-15.7%)로 전환

- (IT산업군) 글로벌 수요 부진 지속으로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21.0%) 증가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31.6% 증가율 기록

□ 내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대내 부정적 여건 우세로 회복세 지연

○ 자동차(9.4%), 조선(6.5%), 정보통신기기(4.9%), 이차전지(62.3%), 바이오헬스(9.6%)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세(일반기계, 석유화학, 디스플레이)가 지속되거나 감소 전환(정유, 가전, 반도체)하는 등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는 모습

- (기계산업군) 자동차(9.4%)는 차량 공급 정상화, 조선(6.5%)은 인수물량 확대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8.2%)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감소

- (소재산업군) 철강(3.1%), 섬유(1.0%)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정유(-0.1%)와 석유화학(-12.6%)은 수요산업 업황 부진으로 감소

- (IT산업군) 정보통신기기(4.9%), 이차전지(67.7%), 바이오헬스(9.6%)는 증가한 반면, 가전(-10.3%), 반도체(-8.5%), 디스플레이(-15.6%)는 부진 심화

□ 생산: 대외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정보통신기기(-23.6%), 가전(-10.6%), 반도체(-30.9%), 디스플레이(-21.3%) 등 IT신산업군에서 두 자릿수 감소율 기록

- (기계산업군) 자동차(18.4%)와 조선(15.1%) 생산은 전년동기 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로 전환했지만, 일반기계(-4.3%)는 내수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소재산업군) 철강(1.8%)과 정유(1.9%)는 내수 및 수출 물량 확대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석유화학(-8.7%)과 섬유(-3.4%)는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생산물량 감소

- (IT신산업군) 이차전지(8.4%)와 바이오헬스(5.1%) 생산은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나, 그 외 산업들은 국내외 수요 둔화로 큰 폭으로 감소

□ 수입: 단가 하락 및 내수 둔화로 전년동기(20.0%) 증가에서 -9.6% 감소로 전환

- (기계산업군) 조선(-24.3%)과 일반기계(-1.3%)가 감소했지만, 자동차(15.1%)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비 3.5% 증가

- (소재산업군) 내수 부진 및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25.3%) 증가에서 -13.8% 큰 폭의 감소로 전환

- (IT신산업군) 이차전지(72.2%)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비 11.9% 감소

2. 2023년 하반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대외 여건 변화: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및 금융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 (세계수요 여건) 친환경 및 고령화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친환경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부문의 세계수요는 하반기에도 견조한 흐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고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러·우 전쟁 장기화 및 기술패권 경쟁 확산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수요 회복을 제약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세 미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
- (해외 생산 전망) 산업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반기 주요 수출 시장의 수요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거점 국가에서의 현지 생산과 투자는 증가할 전망

□ 국내 여건 변화: 내수는 제한적 회복세, 공급능력은 점진적 확대 전망

- (국내 수요 여건) 대내외 경제성장률 둔화,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수요산업 부진 등이 내수 회복 흐름을 제약할 가능성
- (공급능력 여건) 공급망 정상화(자동차), 생산설비 신증설 및 가동률 향상(정유, 석유화학), 투자 확대(이차전지, 바이오헬스)에 힘입어 공급능력 향상이 기대되나,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인력 부족(조선) 및 해외 생산 확대(가전)로 공급능력 위축 우려

3.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대외 여건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기 회복세 제약으로 전년동기비 4.3% 감소 전망

-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주요 수출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둔화로 조선(50.8%), 철강(3.8%), 이차전지(9.2%), 바이오헬스(3.6%)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하여 전년동기(-3.2%)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4.3% 증가율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0.2%)와 일반기계(-0.3%)는 수출이 부진하지만, 조선(50.8%)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6.6%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단가 하락 및 수입수요 둔화로 전년동기(2.4%) 증가에서 감소(-8.6%)로 전환
 - (IT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13.6%)와 반도체(-12.8%) 부진으로 감소(-8.9%) 지속 전망

□ 내수: 수요산업 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다수 산업에서 회복 지연

○ 조선(112.9%), 정보통신기기(7.9%), 이차전지(68.9%)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감소세(자동차,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지속하거나 성장세 둔화(철강, 바이오헬스) 전망

- (기계산업군) 조선을 제외한 자동차, 일반기계는 내수 감소세 지속 전망
- (소재산업군) 수요산업 업황 부진 및 민간소비 둔화로 내수경기 위축 지속 전망
- (IT산업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바이오헬스가 IT산업군 내수 성장을 주도

□ 생산: 조선(73.6%), 철강(4.1%),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해외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 지속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2.1%)와 일반기계(-12.2%)는 내수 경기 둔화로 감소하나, 조선(73.6%)은 수주물량 본격 생산으로 큰 폭의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철강(4.1%), 석유화학(1.1%)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정유(-1.7%), 섬유(-1.8%)는 대내외 수요 둔화로 감소 전망
- (IT산업군)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부진, 해외생산 확대 감소 전망

□ 수입: 단가 하락 및 내수경기 둔화로 전년동기(2.9%) 증가에서 -4.9% 감소로 전환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1.2%)와 조선(20.8%)은 증가하지만, 일반기계(-9.2%)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비 3.5%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섬유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단가 하락과 내수 부진으로 3.0% 감소 전망
- (IT산업군) 이차전지(47.5%), 바이오헬스(13.3%)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10.1%) 증가에서 감소(-6.5%)로 전환할 전망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가전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바이오헬스	☁	☁	☹	☀☀

- 주: 1) 전망: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제1장

거시경제 전망

제1장 거시경제 전망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 현 경기 판단: 수출 부진 속 소비 회복세가 성장률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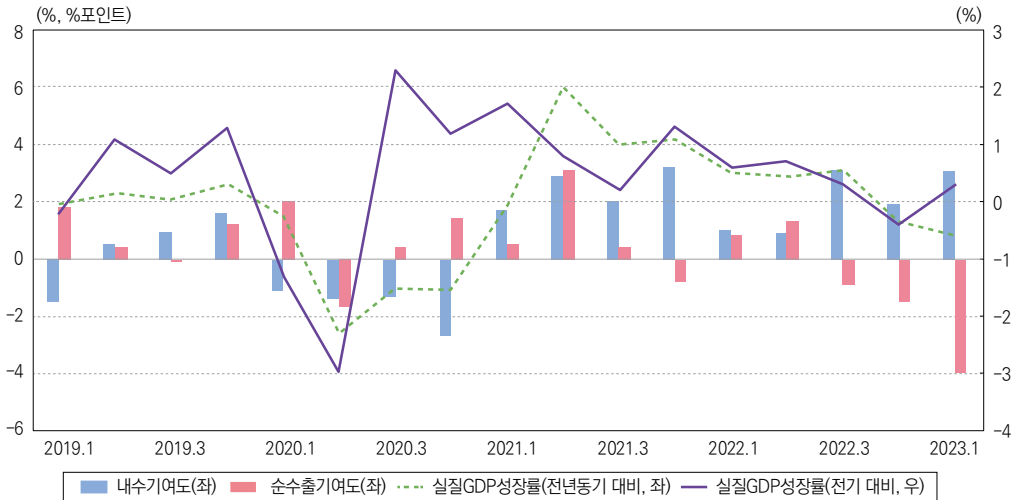
○ 국내 실물경기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와 2022년 말 이후의 수출 부진이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음에도 소비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면서 성장세를 견인

- 내수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기계류 투자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2023년 1/4분기 -4.0%)되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미약한 증가세가 지속

- 수출(통관기준)은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에도 반도체 등 IT 경기 부진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

- GDP(전기비, %): (2022. 1/4) 0.6 → (2/4) 0.7 → (3/4) 0.3 → (4/4) -0.4 → (2023. 1/4) 0.3
- GDP(전년동기비, 이하 동일, %): (2022. 2/4) 2.9 → (3/4) 3.1 → (4/4) 1.3 → (2023. 1/4) 0.8
- 민간소비(%): (2022. 1/4) 4.3 → (2/4) 3.9 → (3/4) 5.7 → (4/4) 3.4 → (2023. 1/4) 4.5
- 설비투자(%): (2022. 1/4) -6.2 → (2/4) -6.6 → (3/4) 4.1 → (4/4) 7.0 → (2023. 1/4) 7.0
- 건설투자(%): (2022. 1/4) -5.5 → (2/4) -3.7 → (3/4) -2.1 → (4/4) -3.1 → (2023. 1/4) 1.1
- 통관수출(%): (2022. 1/4) 18.4 → (2/4) 13.0 → (3/4) 5.8 → (4/4) -10.0 → (2023. 1/4) -12.6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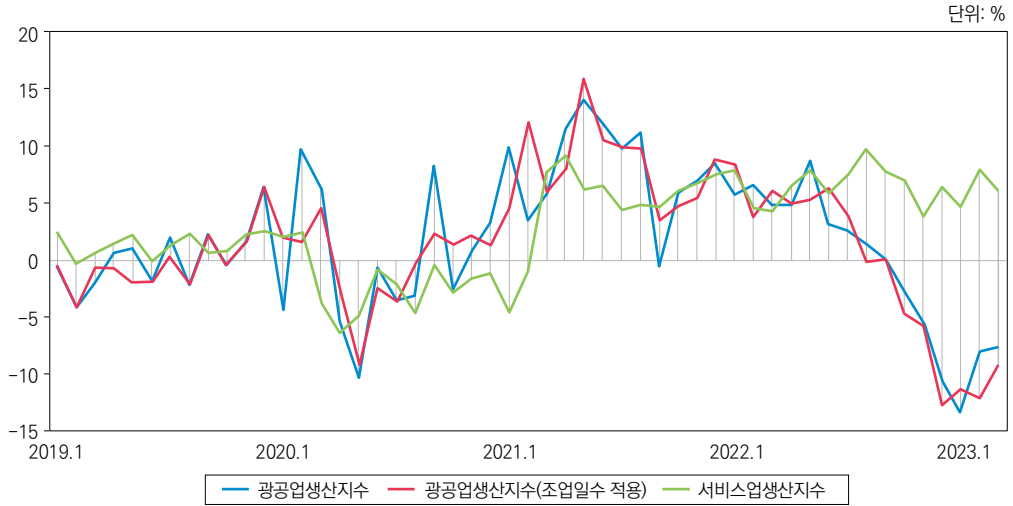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2022년부터 이어온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광공업 생산은 2022년 4분기 들어서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폭이 확대
 - 광공업(전년동기비, %): (2022. 11월) -5.8 → (12월) -12.7 → (2023. 1월) -11.3 → (2월) -12.2 → (3월) -9.2
 - 서비스(전년동기비, %): (2022. 11월) 3.9 → (12월) 6.6 → (2023. 1월) 4.8 → (2월) 8.0 → (3월) 6.2
- 경기지표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2년 3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인 이후 올 들어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2년 7월 이후의 하락세가 2023년 들어서도 이어지는 등 경기둔화 우려감은 점차 확대
 - 선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2022. 11월) -0.3 → (12월) -0.4 → (2023. 1월) -0.3 → (2월) -0.3 → (3월) -0.3
 - 동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2022. 11월) -0.6 → (12월) -0.7 → (2023. 1월) -0.4 → (2월) 0.3 → (3월) 0.6

〈그림 1-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2. 대외 여건 전망

(1) 세계경제

□ 2023년 초 동향: 선진권 중심의 미약한 성장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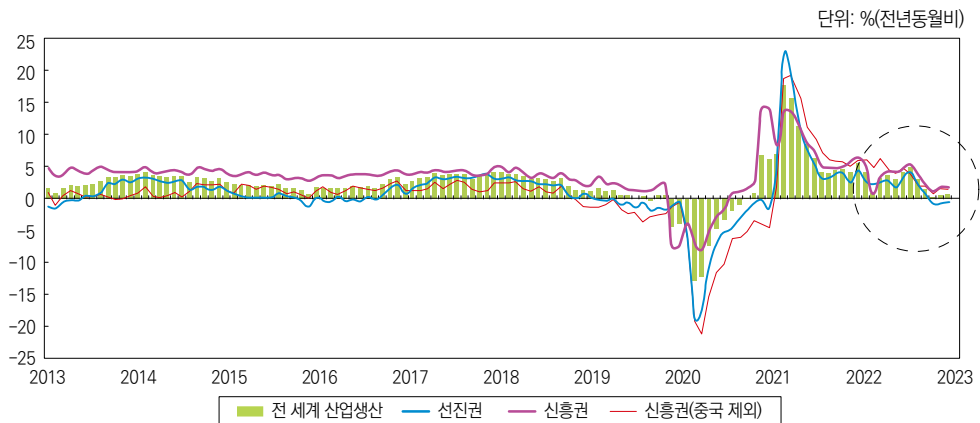
○ 전세계 실물경기가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일시 약세를 보인 이후 완만한 흐름을 유지해 오다 연말에 다시 현저하게 둔화되었고, 2023년 들어서도 미약한 흐름이 지속

- 선진권에서는 미국이 2022년 상반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일본과 유로존 역시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으면서 미진한 흐름 지속

- 신흥권에서는 중국이 2022년 말 코로나 봉쇄조치를 완화하면서 내수가 급속히 회복된 데 힘입어 2023년 초에 연간 4%대의 성장률을 회복한 반면, 브라질과 인도 등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추세

- 전 세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2년 상반기) 3.6% (2022년 하반기) 2.7% (2023년 1~2월) 0.6%
- 선진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2년 상반기) 2.8% (2022년 하반기) 1.8% (2023년 1~2월) -0.7%
- 신흥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2년 상반기) 4.3% (2022년 하반기) 3.5% (2023년 1~2월) 1.7%
- 신흥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2년 상반기) 4.3% (2022년 하반기) 3.5% (2023년 1~2월) 1.7%

〈그림 1-4〉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23년 전망: 불확실성 속에 제한적 성장 예상

○ 2023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정도 완화된 반면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은행위기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잠재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

- 미국 경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조치로 인플레이가 진정되고 있으나, 고용 여건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파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데다,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
- 일본 경제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 기조 유지에도 수요 약세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 동인이 미흡한 실정이며, 유로존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리 인상 속에서 인플레이 진정 여부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 완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
- 중국 경제는 2022년 말 코로나 방역 관련 전격적인 완화 조치로 인해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5%) 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수출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외수에 의한 성장 동력은 미약할 것으로 예상

〈표 1-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2021	2022					2023	2023 전망치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IMF (23.4월)	OECD (23.3월)	ADB (23.4월)
전 세계 실질GDP ¹⁾	6.3					3.4		2.8	2.6	-
선진권 ²⁾	5.7	4.6	3.3	2.6	1.4	2.9	-	1.3	-	0.7
미국 ³⁾	5.9	3.7 (-1.6)	1.8 (-0.6)	1.9 (3.2)	0.9 (2.6)	2.1	1.6 (1.3)	1.6	1.5	0.9
유로존	5.3	5.5	4.4	2.4	1.8	3.5	1.3	0.8	0.8	0.5
일본	2.1	0.6	1.4	1.5	0.4	1.0	1.3	1.3	1.4	0.8
신흥권	6.9					4.0		3.9	-	-
중국	4.8	0.4	3.9	2.9	2.2	3.0	4.5	5.2	5.3	5.0
세계교역(재화)	11.1					3.3		1.5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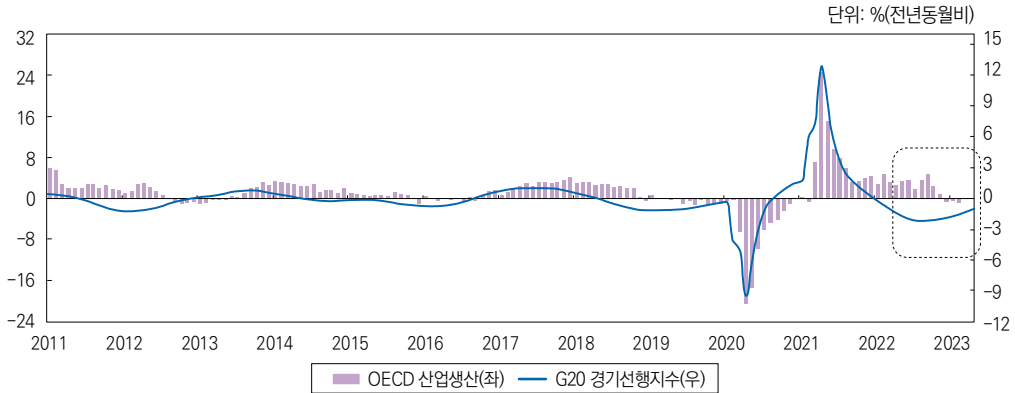
주: 1) 전 세계는 PPP 환율 적용 기준.

2) 선진권의 분기별 수치는 OECD 국가 기준.

3) () 안의 수치는 전기비 연율 기준.

-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 및 미국·유럽·중국·러시아 등 국가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관심사

〈그림 1-5〉 OECD 산업생산과 G20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자료: OECD.

〈표 1-2〉 세계 주요 권역 및 주요국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경기선행지수 ¹⁾ (장기추세=100)						전월비 변화율(%)						전년 동월비	
	2022				2023		2022				2023			2023 4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4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4월		
G20개국	100.16	99.48	98.99	98.80	98.84	98.87	▲0.60	▲0.68	▲0.49	▲0.18	0.04	0.03	▲1.06	
G7(선진권)	100.51	99.50	98.79	98.53	98.50	98.48	▲0.75	▲1.02	▲0.71	▲0.26	▲0.03	▲0.01	▲1.70	
유럽 4개국 ²⁾	100.52	98.91	97.88	97.74	98.01	98.10	▲1.46	▲1.61	▲1.03	▲0.13	0.27	0.08	▲1.84	
아시아 5개국 ²⁾	99.69	99.37	99.11	98.99	99.10	99.17	▲0.39	▲0.32	▲0.26	▲0.12	0.11	0.07	▲0.40	
미국	100.43	99.59	99.01	98.72	98.52	98.44	▲0.50	▲0.84	▲0.58	▲0.29	▲0.19	▲0.08	▲1.73	
독일	101.17	99.89	98.76	98.61	99.11	99.28	▲0.83	▲1.28	▲1.14	▲0.14	0.49	0.18	▲1.49	
프랑스	100.44	99.39	98.78	98.36	97.93	97.78	▲0.91	▲1.04	▲0.61	▲0.42	▲0.43	▲0.15	▲2.27	
영국	99.20	96.99	96.02	96.16	96.62	96.76	▲2.54	▲2.21	▲0.98	0.14	0.46	0.14	▲1.55	
일본	100.53	100.45	100.25	100.02	100.03	100.07	0.05	▲0.08	▲0.20	▲0.23	0.01	0.04	▲0.45	
브라질	100.51	100.20	99.91	99.30	98.95	98.94	▲0.99	▲0.32	▲0.29	▲0.61	▲0.35	▲0.00	▲1.45	
중국	99.05	98.67	98.58	98.82	99.30	99.48	▲0.62	▲0.38	▲0.09	0.24	0.48	0.18	0.59	
인도	100.78	100.47	99.99	99.42	98.82	98.62	▲0.13	▲0.31	▲0.47	▲0.57	▲0.61	▲0.20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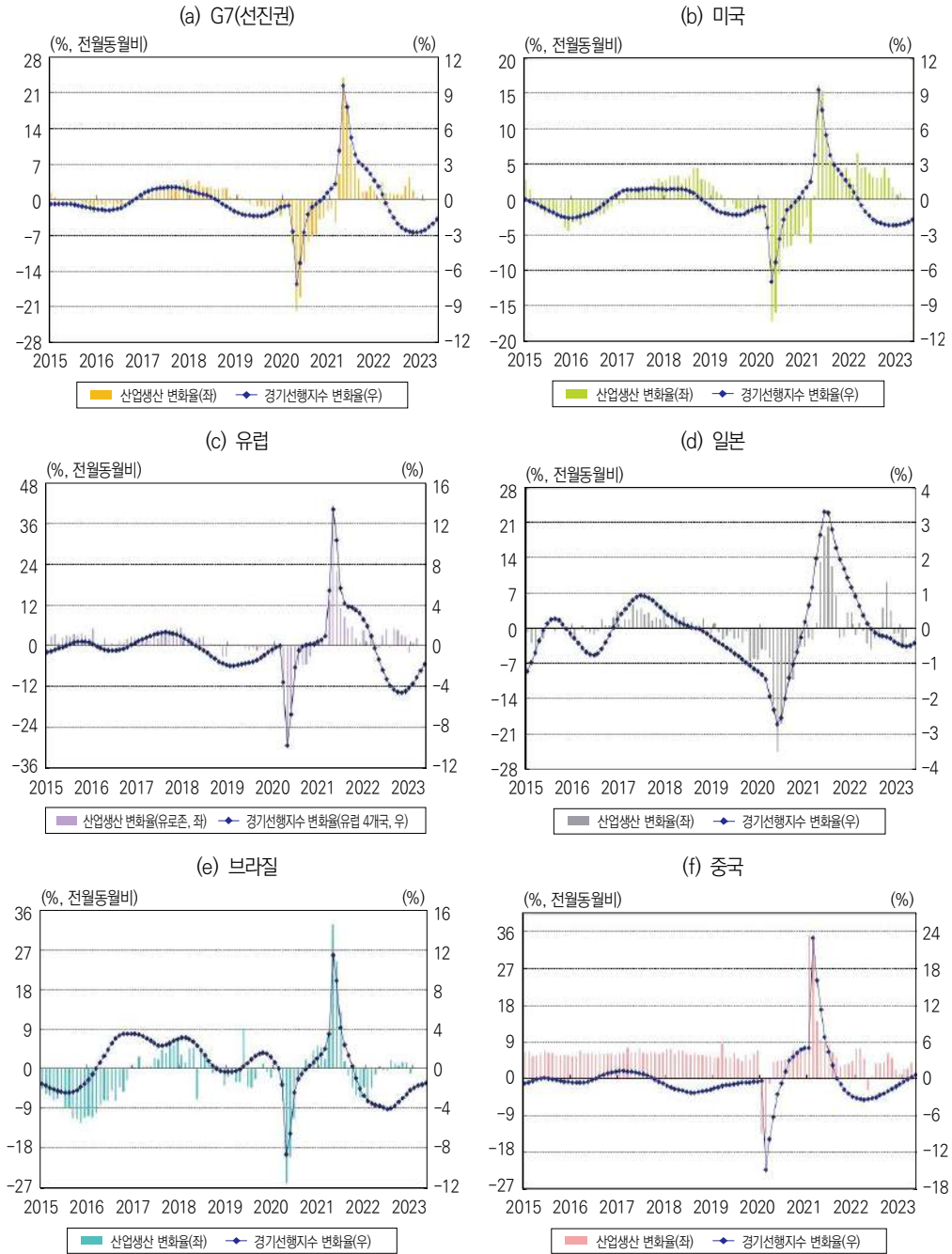
자료: OECD.

주: 1) 지수가 100 이상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확장(또는 수축), 100 미만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회복(또는 하강)을 의미.

2) 유럽 4개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을,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등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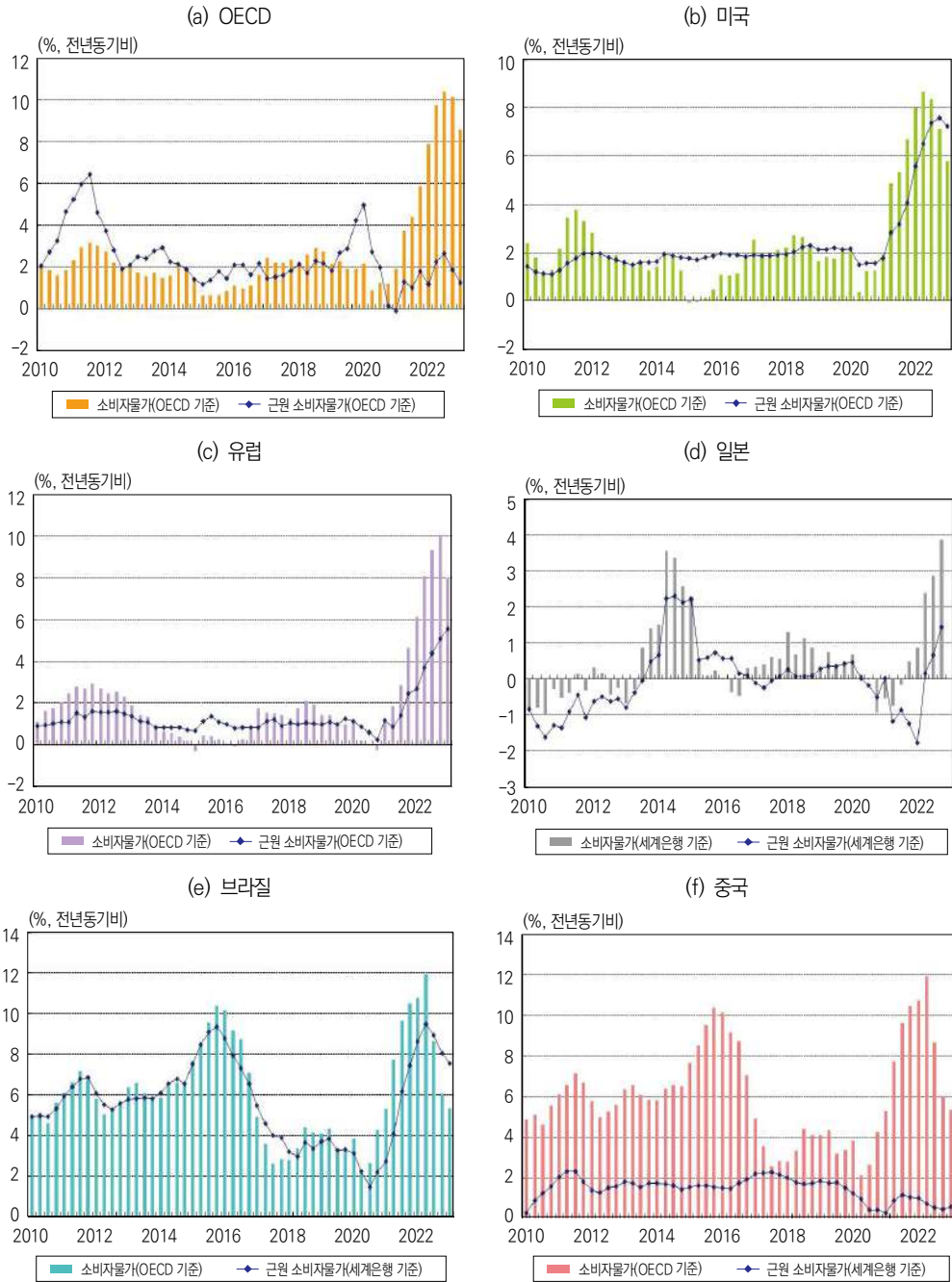
3) ▲는 마이너스를 의미.

〈그림 1-6〉 세계 주요국별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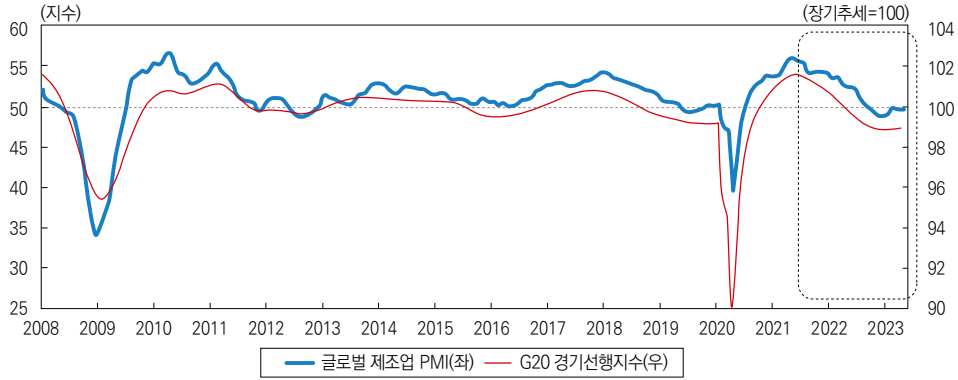
자료: OECD.

〈그림 1-7〉 세계 주요국별 소비자물가 및 근원 소비자물가 변화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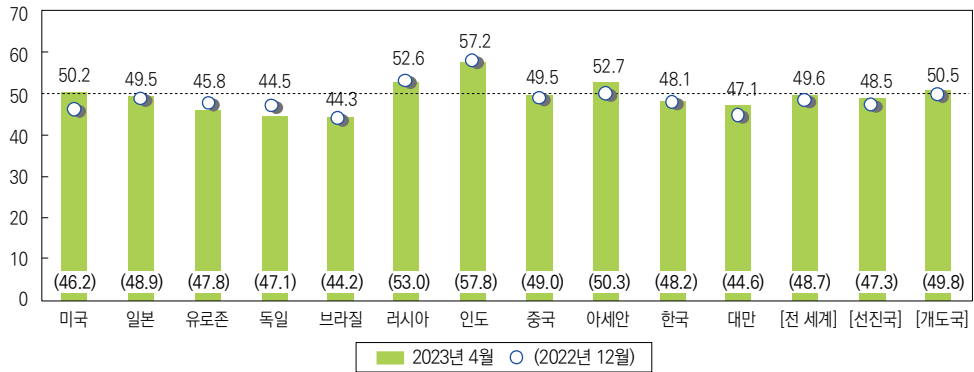
자료: OECD; World Bank.

〈그림 1-8〉 IHS Markit의 글로벌 제조업 PMI와 G20 경기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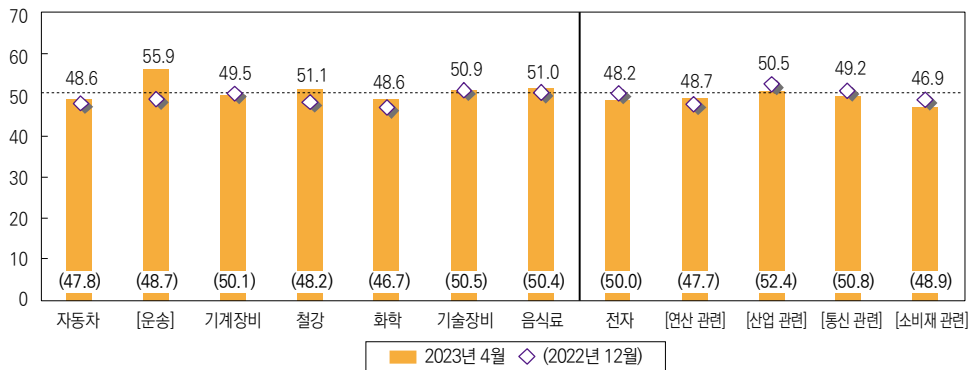
자료: IHS Markit; OECD.

〈그림 1-9〉 전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PMI(2022년 12월 대비 2023년 4월 현재)



자료: IHS Markit.

〈그림 1-10〉 전 세계 제조업 주요 업종별 PMI(2022년 12월 대비 2023년 4월 현재)



자료: IHS Markit.

(2) 국제유가: 연평균 70달러대 후반 예상

- 2023년 초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내외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3월부터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 우려와 OPEC+의 예상치 못한 감산 발표로 인해 변동성이 심화
 - 연초 국제유가는 중국의 코로나 불확실성과 세계경기 침체 우려 등의 하방 요인으로 70달러 중반까지 하락한 이후, 미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 전망과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기대감으로 80달러 중반까지 상승
 - 이후 OPEC+의 감산 유지와 중국의 원유 수요 회복, 러시아의 원유 감산 결정 등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조가 국제유가의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3월 초까지 보합세를 유지
 -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産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응하여 원유 50만b/d의 감산 계획을 발표(2월 10일)
 - 3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3월 10일)에 이은 시그니처은행(3월 14일)의 파산, 유럽 크레디트 스위스(CS)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금융위기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급락
 - 2023년 상반기 국제유가 최저점: 70.3달러/배럴(3월 20일, 두바이유 기준)
 - 4월에는 사우디를 비롯한 일부 OPEC+ 국가들의 예상치 못한 추가 감산 발표(4월 2일)로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반등
 - 2023년 상반기 국제유가 최고점: 87.4달러/배럴(4월 13일, 두바이유 기준)
 - 5월 들어서는 미국의 금융위기 재점화, 미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국제유가는 7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

〈표 1-3〉 국제유가 현황

단위: 달러/배럴(기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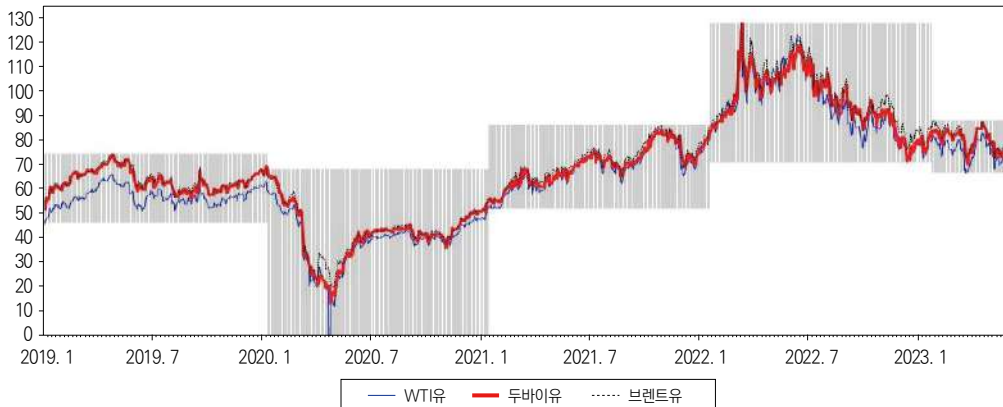
	2021					2022					202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두바이유	60.1	66.9	71.2	77.7	69.0	94.2	107.5	95.3	84.2	95.3	80.2	83.4	74.8
브렌트유	60.8	68.8	73.5	79.6	70.7	100.3	113.7	100.7	88.6	100.8	81.2	85.2	75.7
WTI유	57.8	66.1	70.6	77.5	68.0	94.5	108.8	93.4	82.7	94.8	76.1	79.8	71.7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2023년 5월은 5월 28일 기준.

〈그림 1-11〉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자료: EIA, Refinitiv, Data Stream

주: 1)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소값~최대값)임.

2) 2020년 4월 20일 WTI유 가격은 배럴당 -37.6달러를 기록.

○ 2023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수요 측 상승 요인이 제한적인 가운데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 감소가 예상되지만, 감소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이 예상

- 상반기 러시아와 OPEC+ 국가들의 감소 결정은 하반기 원유 공급량 감소 우려를 높이고 있으나, 미국과 브라질 등 non-OPEC+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공급 감소로 인한 원유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원유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가 수요 증가세를 제한할 것이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

〈표 1-4〉 2022년 및 2023년 국제유가 전망(EIA 기준)

단위: 달러/배럴

	2022					202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WTI유	95.2	108.9	93.1	86.0	95.8	76.0	76.0	72.5	73.0	73.6
브렌트유	101.2	113.8	100.5	93.0	102.1	81.0	77.6	78.0	78.0	78.7

자료: EIA 단기에너지전망 보고서(2023년 5월).

〈표 1-5〉 2023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기간 평균)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101.6 (64.1)	89.7 (20.4)	95.4 (40.3)	80.6 (-20.7)	76.3 (-14.4)	78.5 (-17.7)

자료: 산업연구원.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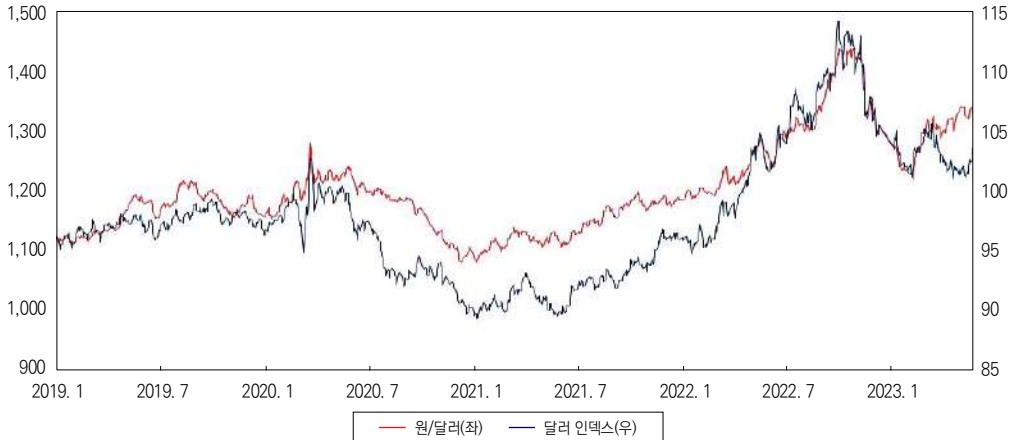
2) 2023년 상반기는 5월 23일 기준.

- 두바이유 기준 2023년 유가는 상반기 평균 80.6달러(전년동기비 20.7% 하락), 하반기에는 76.3달러(전년동기비 14.4% 하락)로 예상하고, 연평균 78.5달러(전년 대비 17.7% 하락)로 전망

(3) 환율: 연평균 1,280원 내외 수준 예상

- 2023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하락 후 상승한 모습이고, 한국경제 성장 둔화 및 무역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한 고(高)수준(원화 약세)이 지속
 - 연초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점인 1,219.3원(2월 2일, 종가 기준)을 기록
 - 이후 미 연준의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 표명과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 발표(2월 14일)로 연준의 통화긴축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1,300원(2월 24일)을 돌파

〈그림 1-12〉 원/달러,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ICE Data Services, 한국은행, Data Stream.

-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1월 -6.4%, 2월 -6.0%, 3월 -5.0%
- 3월 이후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 확산과 수출 부진 및 무역적자 지속 등 한국의 경기둔화 우려 속 달러 수급 악화로 인해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
- 2023년 상반기 달러화 인덱스 최고점과 최저점: 105.7(3월 8일) → 101.0(4월 13일)
- 2023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 최고점: 1,340.2원(5월 2일)
- 2023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금융시장 리스크 해소 등 달러화 약세 요인과 수출 부진 완화 등 원화 강세 요인으로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이 예상
- 최근 원/달러 환율과 달러화 인덱스 간 비동조화 현상의 원인은 계절적 요인으로 판단되며, 하반기에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과 연동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선진국들의 금융 리스크가 안정화되고,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에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중국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 1-6〉 2023년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원/달러 환율	1,232.6 (10.3)	1,350.2 (15.3)	1,291.4 (12.8)	1,295.2 (5.1)	1,263.3 (-6.4)	1,279.3 (-0.9)

자료: 산업연구원.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3년 상반기는 2023년 5월 24일 기준.

- 다만,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미-중 무역 갈등, 국내 경기 둔화 등의 국내외 리스크 요인 등이 심화될 경우, 달러화 강세 및 원화 약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2023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평균 1,295.2원(전년동기비 5.1% 상승), 하반기 1,263.3원(전년동기비 6.4% 하락)으로 예상하고, 연평균 1,279.3원(전년 대비 0.9% 하락) 내외로 예상

3. 2023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 2023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세가 이어지는 등 대외 수요 개선세가 더디면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그간의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 위축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
-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 전환이 예상
 - 2023년 수출과 수입은 통관 기준으로 각각 9.1%와 10.2% 감소가 예상되고,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줄어든 353억 달러 규모가 예상

- 내수는 소비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투자 부문에서 설비투자의 소폭 감소세와 건설 투자의 소폭 증가 전환이 예상
 -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 예상되지만, 저조한 소비심리, 주요 자산 가격 하락, 실질소득 감소 등에 더해,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의 가중과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세 등이 소비 수요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등 대외 여건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글로벌 경기 약세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이어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신도시 개발과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되지만, 주택시장 위축과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전망
- 2023년 하반기에는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지속 여부, 소비 개선세 지속 여부, 수출 및 반도체 산업 회복 시점 등이 추가적인 변수가 될 전망

〈표 1-7〉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4.1	3.0	2.2	2.6	1.0	1.7	1.4
민간소비	3.7	4.1	4.5	4.3	3.4	2.1	2.7
설비투자	9.0	-6.4	5.6	-0.4	4.3	-5.9	-0.8
건설투자	-1.6	-4.6	-2.6	-3.6	1.2	0.2	0.7
통관 수출	6,444 (25.7)	3,505 (15.6)	3,331 (-2.4)	6,836 (6.1)	3,060 (-12.7)	3,156 (-5.2)	6,216 (-9.1)
통관 수입	6,151 (31.5)	3,614 (26.4)	3,699 (12.4)	7,314 (18.9)	3,353 (-7.2)	3,216 (-13.1)	6,569 (-10.2)
무역수지	293	-109	-369	-478	-293	-60	-353

자료: 산업연구원.

(2)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2023년 1분기 민간소비는 실질소득이 수출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교역조건의 악화로 감소세가 이어짐에도 코로나 방역 조치의 완화로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증가세가 확대

- 민간소비는 2022년 4분기 전년동기비 3.4% 성장한 후, 2023년 1분기 4.5%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견고한 회복세가 지속
- 실질총소득(GNI)은 수출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된 영향으로 감소세가 불가피해 보이면서 향후 소비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수출물가 변화율(전년동기비, %): (2022. 3/4) -0.9 → (4/4) -6.0 → (2023. 1/4) -8.8
 - 소득교역조건 변화율(전년동기비, %): (2022.3/4) -6.3 → (4/4) -10.9 → (2023.1/4) -9.6
- 1분기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0.5%)와 의복 등 준내구재(2.9%)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등 비내구재 판매가 감소(-1.7%)하면서 전년동기비 소폭 감소(-0.3%)

〈표 1-8〉 민간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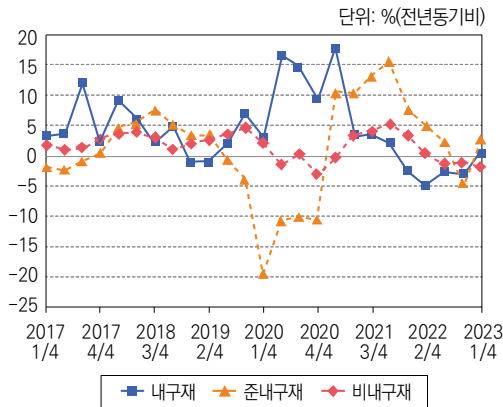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2021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민간소비	3.7	4.3 (-0.5)	3.9 (2.9)	5.7 (1.7)	3.4 (-0.6)	4.3	4.5 (0.5)
소매판매액지수	5.8	2.6 (-0.7)	-0.2 (-1.0)	-0.9 (0.3)	-2.3 (-0.9)	-0.3	-0.3 (1.1)
실질 GNI	3.4	-0.4 (1.0)	-1.1 (-1.3)	-1.4 (-0.7)	-1.0 (-0.1)	-1.0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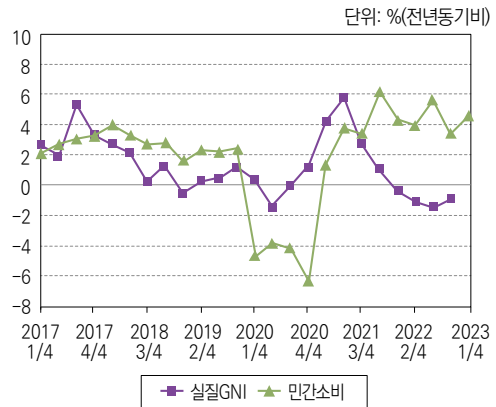
주: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그림 1-13〉 재화별 소비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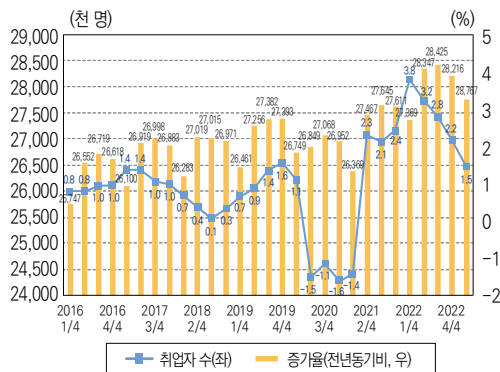
〈그림 1-14〉 민간소비와 실질GNI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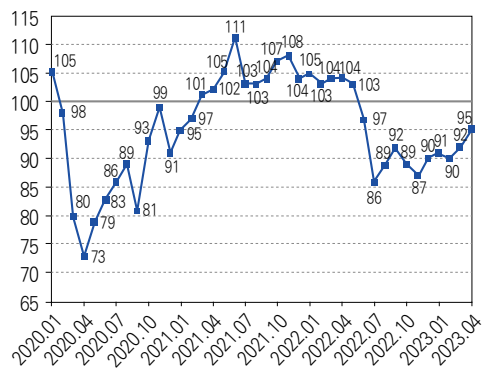
- 취업자 수는 2022년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2022년 6월부터 100 이하에 머물러 있어 향후 부정적 전망이 우세
- 2023년 1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1.5% 증가한 2,777만 명을 기록
-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3년 2월부터 점차 상승하면서 4월 현재 95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100 미만으로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세

〈그림 1-15〉 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그림 1-16〉 소비자 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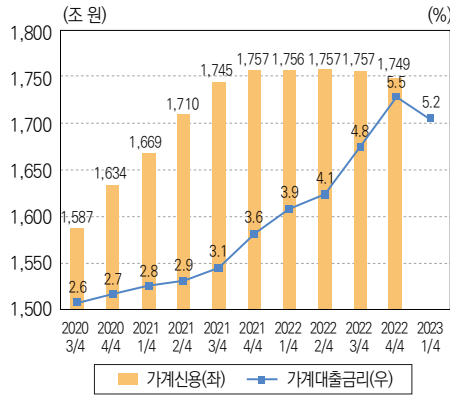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동향조사.

○ 가계부채가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채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2022년 4분기부터 소폭 감소한 모습이나, 2023년 들어 금리가 높은 수준(5%대)을 유지함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직전의 수준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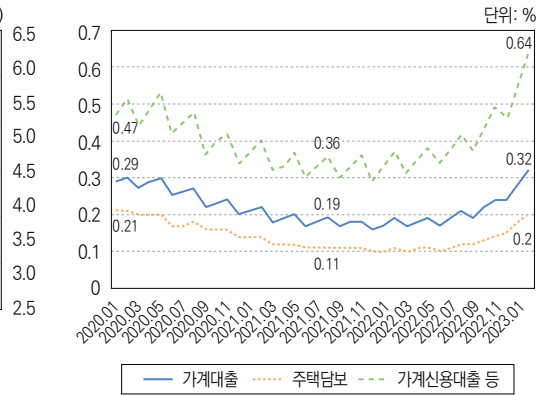
- 가계대출 연체율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 연체율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코로나19 확산 직전 수준(0.29%)을 상회하는 0.32%까지 상승

〈그림 1-17〉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1-18〉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 금융감독원 (www.fss.or.kr)

○ 2023년 민간소비는 본격적인 일상 회복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황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 교역조건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세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4.3%)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다만,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의 본격화로 인해 국내외 대면소비가 활발히 유지되고 있는 점은 소비 둔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 1-9〉 민간소비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4.1	4.5	4.3	3.4	2.1	2.7

자료: 산업연구원.

2) 투자

□ 설비투자

- 2023년 1분기 설비투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지연되었던 설비투자의 집행 및 기저효과 등에 기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대외 여건 및 반도체 업황 악화로 전분기 대비로는 감소 전환된 모습
- 부문별로 살펴보면, 2022년 하반기 반등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던 기계류가 올해 1월에 크게 감소하면서 2023년 1분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운송장비는 기계류와 마찬가지로 1월에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월에 다시 반등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
 - 기계류 설비투자가 2023년 2월과 3월에 일반기계류와 정밀기기가 동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운송장비는 3월에 기타운송장비가 큰 폭으로 감소(-11.3%)한 반면, 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해소와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13.3%)을 보인 데 힘입어 2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
- 2023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와 반도체 업황 악화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최근 제조업 재고율은 반도체 등 ICT 업종의 재고율이 크게 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197.4%, 2023년 3월)을 기록, 이는 향후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재고를 활용할 것임을 시사

〈표 1-10〉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021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설비투자	9.0	-6.2 (-3.9)	-6.6 (0.5)	4.1 (7.9)	7.0 (2.7)	-0.4	7.0 (-4.0)
기계류	12.9	-4.3 (-3.5)	-3.6 (1.4)	4.8 (8.3)	12.3 (5.4)	2.3	
운송장비	-1.6	-12.7 (-5.1)	-15.3 (-2.8)	1.4 (6.5)	-8.1 (-6.8)	-8.7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3년 1분기는 잠정치.

2)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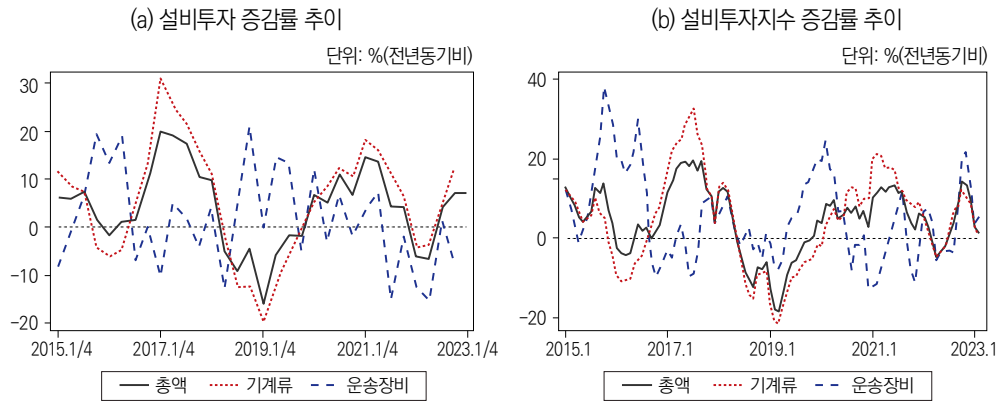
〈표 1-11〉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동월)비)

구분	총지수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월	2월 ¹⁾	3월 ¹⁾
총지수	3.4	-1.3	-2.4	7.5	9.6	-0.4	-7.4	4.2	2.2	
기계류	3.0	-2.4	-2.0	8.0	8.5	-1.1	-6.2	0.9	1.8	
일반기계류	3.6	-5.3	-2.9	9.6	13.2	-0.5	-9.8	2.2	5.7	
전기 및 전자기기	2.2	5.4	-2.6	4.6	1.4	-4.6	-5.8	-3.7	-4.2	
정밀기기	4.7	-2.0	4.4	10.9	5.3	5.2	11.5	4.3	0.7	
기타기기	-1.1	0.2	-0.7	-0.8	-3.2	-7.9	-8.3	-0.6	-13.6	
운송장비	4.4	2.6	-3.8	5.9	13.0	2.0	-10.6	15.0	3.7	
자동차	7.7	-2.2	-3.4	17.4	19.0	13.1	21.5	5.6	13.3	
기타운송장비	0.6	9.5	-4.4	-7.8	5.1	-12.9	-39.3	31.3	-11.3	

자료: 통계청.
주: 1) 잠정치.

〈그림 1-19〉 설비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 원화 약세도 수입 자본재 가격의 상승과 자본재 수입(자본재 수입 점유율: 30.3%, 2023년 2월 기준)의 감소를 통해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가능
-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는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신규 설비투자가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등의 설비투자는 이어질 전망

* 주요 IT 기업의 2023년 반도체 설비투자 계획(2023년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

· SK하이닉스: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투자를 제외하고 전 영역의 투자를 최소화”

· 삼성전자: “증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및 R&D 투자 비중은 지속 확대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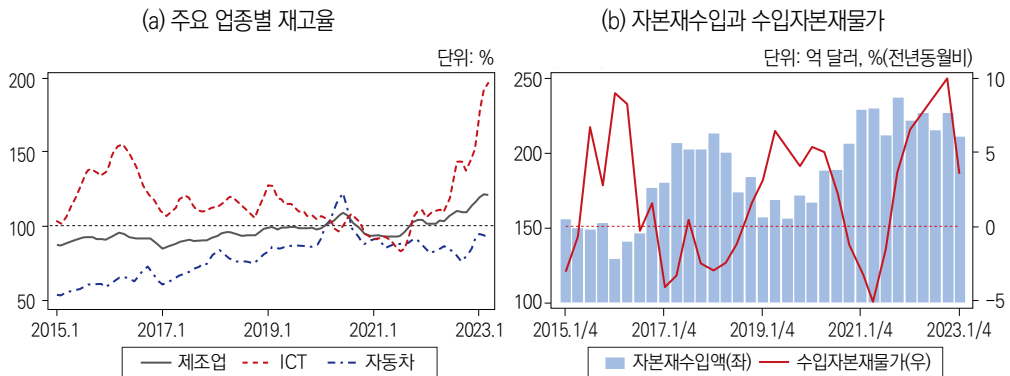
-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짐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 국내 전기차 분야에 2030년까지 국내에 24조 원 투자 계획

- 설비투자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액은 2023년 1분기 ICT가 크게 부진(전년동기비 20.2% 감소)한 모습이고, 설비투자 BSI는 소폭이나마 반등(4월 85, 5월 86)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¹⁾

-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23년 1분기 자동차(17.3%포인트)를 중심으로 기계장비류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ICT(-26.7%포인트)와 화학제품(-18.8%포인트) 등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7.7%포인트)를 기록

〈그림 1-20〉 재고율과 자본재수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재고율=(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2) 재고율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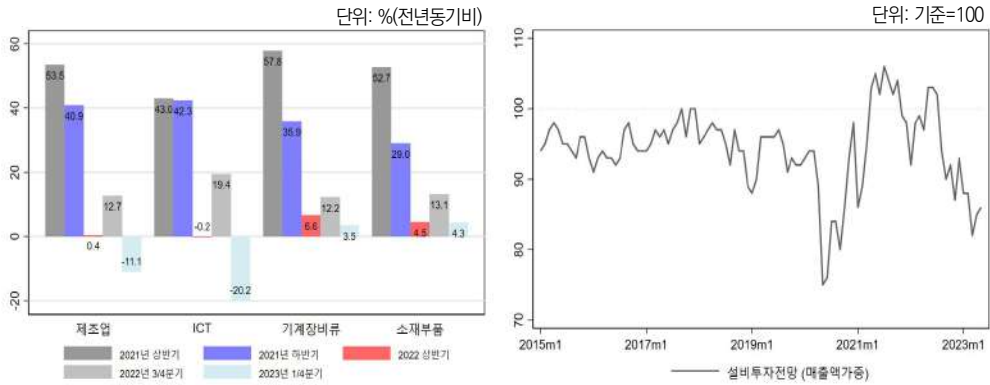
3) 자본재수입액은 달러 기준, 수입자본재물가는 원화 기준.

1) 2009년 1월~2019년 12월 기간 (매출액가중) 설비투자 BSI 전망치의 평균은 96.2.

〈그림 1-21〉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a) 수요자별 기계수주액(선박 제외) 증감률

(b) 설비투자 BSI 전망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

〈표 1-12〉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단위: %포인트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월	2월 ¹⁾	3월 ¹⁾	
제조업	1.9	6.7	5.5	1.3	-5.9	-7.7	-11.9	-6.0	-5.0	
ICT	0.1	16.5	11.6	-7.2	-20.7	-26.7	-27.0	-32.1	-21.7	
기계장비류	자동차	6.7	-6.3	3.6	16.7	12.8	17.3	6.4	22.0	23.1
	기타운송장비	21.9	20.7	24.5	22.5	20.0	12.4	3.6	26.7	8.5
	일반기계	5.4	-0.2	-0.7	12.6	9.7	4.7	-6.1	12.1	8.4
소재부품	석유정제	1.8	3.8	1.1	4.7	-2.4	0.2	-0.5	-0.6	1.7
	화학제품	-9.8	0.4	-5.2	-15.6	-18.8	-18.8	-22.7	-15.5	-17.9
	1차금속	-7.1	1.3	-1.5	-9.4	-18.8	-6.0	-15.0	-1.2	-1.5
	섬유제품	8.7	14.7	11.8	8.6	-0.5	-5.6	-10.3	2.0	-7.6

자료: 통계청.

주: 1) 잠정치.

2)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

〈표 1-13〉 설비투자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설비투자	-6.4	5.6	-0.4	4.3	-5.9	-0.8

자료: 산업연구원.

□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지난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자금시장 불안에 따른 신규 착공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 2023년 1분기에 들어서며 증가세 전환
 - 형태별로 보면 건물건설은 비주거용 건물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거용건물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토목건설은 2021년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
 - 2023년 1분기 건설투자 증가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에 기인
 - 건설기성액은 건물건설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토목건설도 2022년 4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2022년 2분기부터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
- 건설기성액(불변, 전년동기비, %): (2022. 3/4) 3.5 → (4/4) 6.4 → (2023. 1/4) 13.4
 - * 건물건설(불변, 전년동기비, %): (2022. 3/4) 4.7 → (4/4) 7.3 → (2023. 1/4) 16.2
 - * 토목건설(불변, 전년동기비, %): (2022. 3/4) -0.3 → (4/4) 4.0 → (2023. 1/4) 5.0

〈표 1-14〉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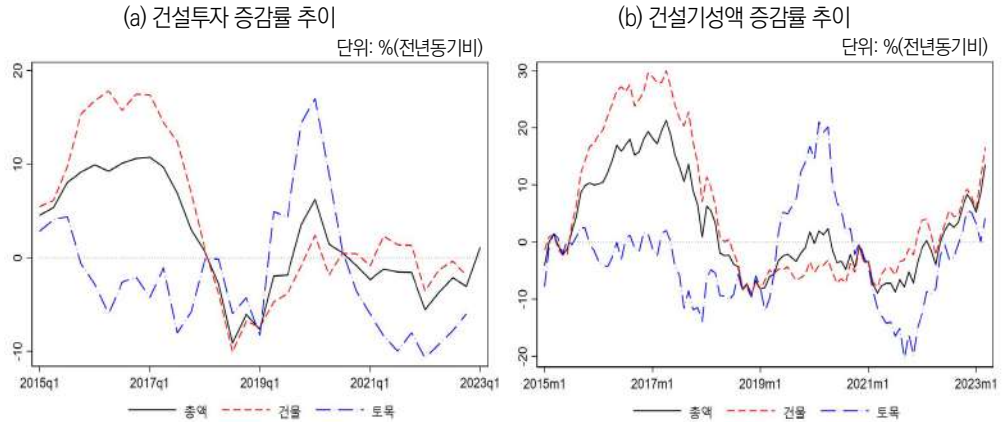
		2022						2023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건설투자		-1.7	-5.5 (-3.9)	-3.7 (0.2)	-2.1 (-0.2)	-3.1 (0.8)	-3.6	1.1 (0.2)
형태별	건물건설	1.0	-3.6 (-4.3)	-1.3 (1.1)	-0.4 (1.4)	-1.9 (0.0)	-1.8	
	주거용 건물	0.1	-6.7 (-10.6)	-0.3 (6.2)	-2.5 (-0.1)	-6.5 (-1.6)	-4.0	
	비주거용 건물	2.0	-0.2 (2.0)	-2.2 (-3.4)	1.7 (2.8)	2.8 (1.4)	0.5	
	토목건설	-8.1	-10.7 (-2.8)	-9.3 (-2.1)	-7.8 (-4.3)	-6.0 (3.1)	-8.4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3년 1분기는 잠정치.

2)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그림 1-22〉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건설기성액(불변)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 2023년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수급의 안정화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되지만, 주택경기 둔화 및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확대와 신규 착공 위축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제한적일 전망

- 최근 중국 등지의 수요 둔화로 인해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

- 건설용 중간재(전년동월비, %): (2022. 9월) 10.0 → (2023. 1월) 5.4 → (3월) 4.0
- 건설기성 디플레이터(전년동월비, %): (2022. 9월) 7.6 → (2023. 1월) 5.6 → (3월)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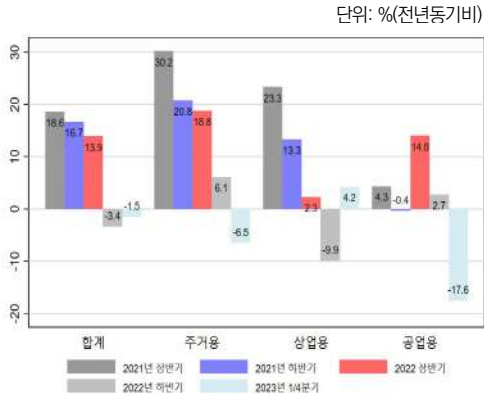
- 신도시 착공과 새 정부 주택공급 대책 등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건설 투자는 증가 예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년 하반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착공 발표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향후 5년간 서울에 50만 호, 전국에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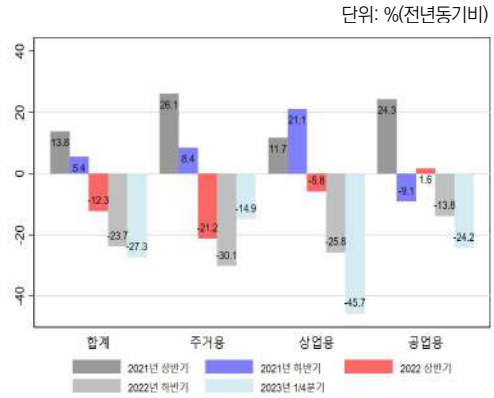
- 건설투자 선행지표를 보면, 건설수주액은 2023년 1분기 중 토목건설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건물건설에서 크게 부진하면서 총액 기준 감소세(2023. 1분기 -12.5%)로 전환되고, 부동산 심리지수는 2023년 들어 점차적으로 회복세

〈그림 1-23〉 건물건설 인허가·착공 추이

(a) 건물건설 허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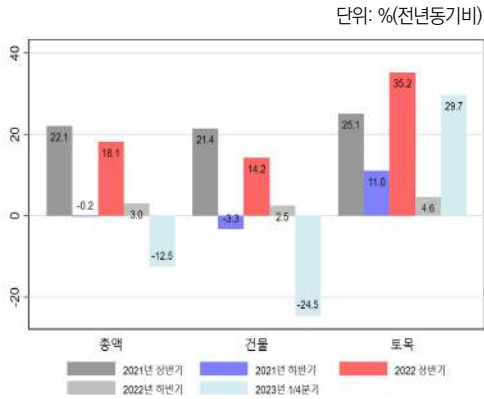
(b) 건물건설 착공 면적



자료: 통계청.
 주: 건설기성액(불변)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그림 1-24〉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a) 건설수주액 증감률



(b) 부동산 심리지수



자료: 통계청, 국토연구원.

〈표 1-15〉 건설투자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4.6	-2.6	-3.6	1.2	0.2	0.7

자료: 산업연구원.

3) 수출입

□ 2023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수출 부진 지속, 무역수지 적자폭은 축소

○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2023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역시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월별로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불황이 수출 감소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미-중 간 마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과 같은 국제 정세와 함께 전 세계적인 고물가는 수출 수요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수출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수입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과 철광석, 구리 등 기초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감소세로 전환

· 수출(전년동기비, %): (2022년) 6.1 → (2022. 3/4) 5.8 → (4/4) -10.0 → (2023. 1/4) -12.7

· 수입(전년동기비, %): (2022년) 18.9 → (2022. 3/4) 22.6 → (4/4) 3.1 → (2023. 1/4) -2.2

〈표 1-16〉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수출	6,444	6,836	1,740	1,590	548	1,515	464	501	551	496
	(25.7)	(6.1)	(5.8)	(-10.0)	(-9.7)	(-12.6)	(-16.4)	(-7.6)	(-13.6)	(-14.3)
수입	6,151	7,314	1,923	1,776	596	1,740	589	554	597	522
	(31.5)	(18.9)	(22.6)	(3.1)	(-2.5)	(-2.2)	(-2.8)	(3.5)	(-6.4)	(-13.3)
무역수지	293	-478	-183	-186	-48	-224	-125	-53	-46	-27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4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그림 1-25〉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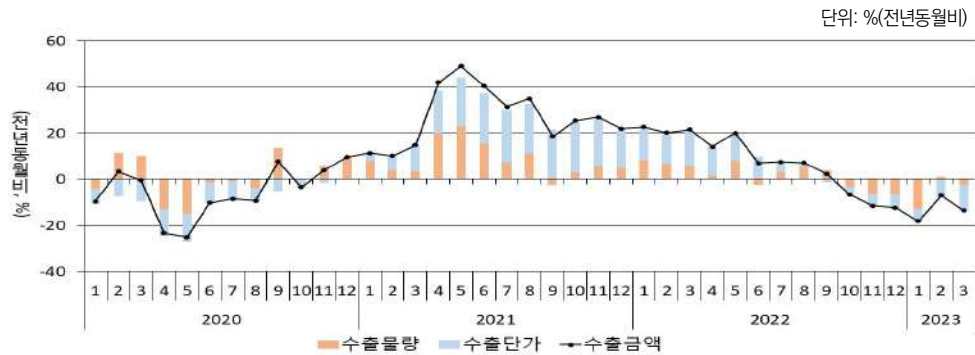
○ 수출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단가 변동이 수출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 일반적으로 단가 하락은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최근의 수출 감소는 단가와 물량이 동시에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부진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

· 수출물량(전년동기비, %): (2022년) 2.0 → (2022. 3/4) 4.1 → (4/4) -5.4 → (2023. 1/4) -4.7

· 수출단가(전년동기비, %): (2022년) 5.3 → (2022. 3/4) 1.5 → (4/4) -5.1 → (2023. 1/4)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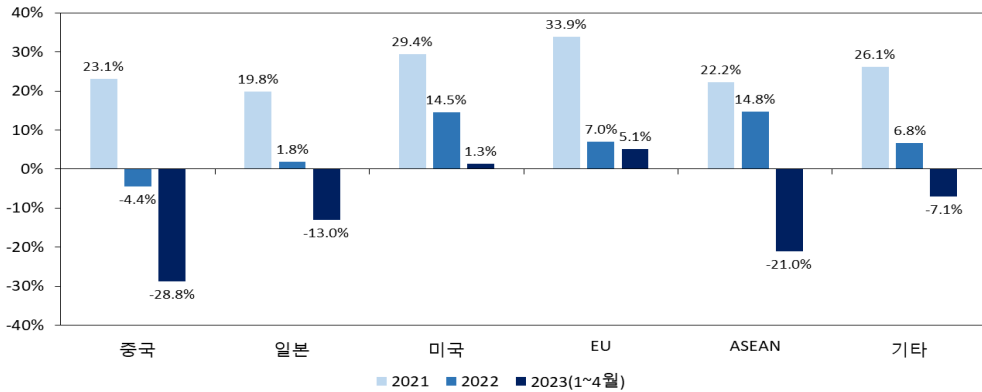
〈그림 1-26〉 수출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저자 작성.

- 지역별 수출을 보면, 중국, 아세안(ASEAN) 등지에 대한 수출이 뚜렷이 감소하고,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
- 대중국 수출은 2022년에 이어 2023년 들어서도 1분기 현재 전년동기비 29% 정도 감소하고, 대아세안 수출 역시 21% 감소한 모습
-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중국 현지 내수 중심 성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 수출 감소 등에 기인

〈그림 1-27〉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산업별로는 자동차 수출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ICT 업종의 침체 영향이 수출 감소를 견인
- 자동차 수출은 2021년 24.2%, 2022년 16.4% 증가에 이어 2023년 1분기에도 44.0%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후 수출 확대 추세
- 반면에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은 2023년 1분기 현재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는 1분기에만 40%의 감소율을 기록(2022년 4분기 25.8% 감소)

〈표 1-17〉 산업별 수출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자동차	24.2	16.4	31.2	29.0	28.1	44.0	21.8	47.0	64.1	40.3
자동차부품	22.2	2.4	7.7	-1.1	-6.3	-3.5	-16.2	13.3	-5.3	-1.6
선박류	16.4	-20.9	5.9	-22.6	76.0	2.6	84.7	-10.5	-24.3	59.2
일반기계	4.6	2.0	0.2	-3.1	-3.9	-2.0	-15.9	12.8	-0.9	7.9
철강	36.9	5.7	-5.2	-17.6	-20.9	-15.8	-25.9	-9.9	-10.7	-10.7
석유화학	54.8	-1.4	-9.8	-25.1	-23.6	-22.6	-24.1	-18.2	-25.1	-23.7
석유제품	57.7	64.9	78.2	18.0	20.8	0.6	14.8	10.9	-16.6	-27.5
섬유	14.0	-4.0	-5.8	-18.7	-17.0	-15.1	-27.7	-4.2	-12.0	-14.9
가전	24.0	-7.4	-15.0	-24.0	-24.8	-8.4	-20.0	4.3	-8.3	-10.2
무선통신기기	45.9	-10.4	-14.9	-19.0	-33.3	-12.7	17.7	-1.8	-42.4	-34.3
컴퓨터	24.7	-4.7	-26.8	-41.0	-34.7	-61.9	-63.8	-64.9	-57.6	-73.3
반도체	29.0	1.0	-3.9	-25.8	-29.1	-40.0	-44.5	-42.5	-34.5	-41.0
디스플레이	18.9	-1.1	-10.0	-20.2	-35.9	-39.5	-36.0	-40.9	-41.6	-29.3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량과 단가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증가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들어 수입 단가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입 감소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 특히 수입 단가의 경우, 중간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유를 비롯한 1차산품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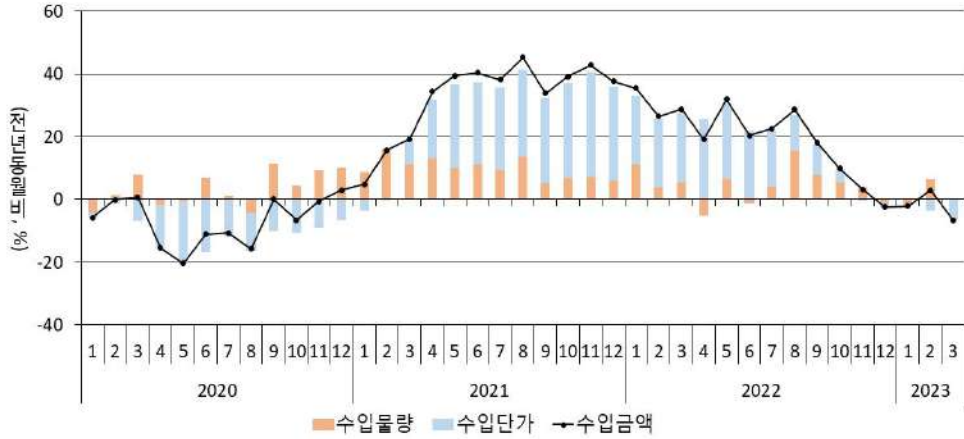
〈표 1-18〉 가공단계별 수입

단위: 억 달러, %

	2022			2023(1~3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7,314	18.9	100	1,740	-2.2	100
1차산품	1,809	41.4	24.7	388	-6.5	22.3
(원유)	1,060	58.1	14.5	221	-5.9	12.7
중간재	3,712	18.6	50.8	916	-0.7	52.7
자본재	891	-1.9	12.2	211	-5.0	12.1
소비재	874	8.3	12.0	218	2.5	12.6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1-28〉 수입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2023년 수출입 전망: 수출은 전년 대비 -9.1%, 수입 -10.2% 감소 전망

○ 수출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에서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저효과와 세계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2023년 중 9.1% 감소 예상

- 특히 반도체 등 ICT 업종의 수출 감소는 주로 가격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감산 등을 통한 가격 조정의 효과성에 주목할 필요

- 지역별로는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른 대중국 무역 축소가 두드러지며, 향후 중국 경기의 회복에 따라 한국산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판단

- 유가와 환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수출 감소요인이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물량 측면에서는 하반기 세계 수요 회복세가 기대되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

○ 수입은 국제유가와 수입중간재 등 주요 수입재 가격 하락과 환율 등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 대비 10.2% 감소 예상

-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 중간재 가격 역시 하락하면서 가격요인을 통한 수입 감소가 예상

- 한편 수출 및 생산 회복 지연이 예상되면서 중간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수요(총수입 대비 50% 비중)의 추가적인 증가는 제한적

○ 2023년 무역수지는 하반기에 수출 대비 수입이 더욱 감소하면서 상반기 293억 달러 적자, 하반기 6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어 연간 353억 달러 수준의 적자가 예상

〈표 1-19〉 2023년 수출입 전망

단위: 억 달러,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기준 수출	6,444 (25.7)	3,505 (15.6)	3,331 (-2.4)	6,836 (6.1)	3,060 (-12.7)	3,156 (-5.2)	6,216 (-9.1)
통관기준 수입	6,151 (31.5)	3,614 (26.4)	3,699 (12.4)	7,314 (18.9)	3,353 (-7.2)	3,216 (-13.1)	6,569 (-10.2)
무역수지	293	-109	-369	-478	-293	-60	-353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참고〉 반도체 수출 부진이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2023년 1분기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 경기 둔화를 주도

○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6,836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경제성장률 2.6% 중 1.3%포인트 기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여주는 등 최근 국내 경기둔화의 주요인으로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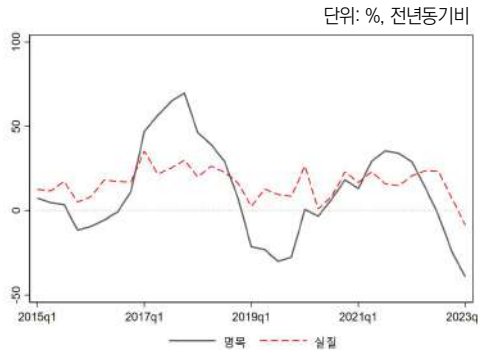
○ 이러한 수출 부진은 지난해 수출의 약 19%를 차지하던 반도체 수출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등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과 밀접한 관련

- 반도체 수출액은 2020년 4분기 이후 이어지던 두 자릿수 증가율의 성장세가 2022년 3분기에 감소세(-2.9%)로 전환되고, 2023년 1분기에는 감소폭(-40%)이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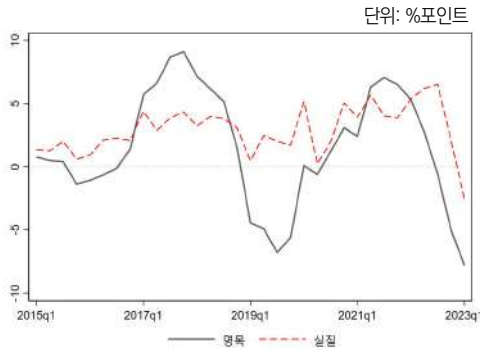
- 2023년 1분기 반도체 수출물량도 감소세(-9.8%)로 돌아서면서, 전체 수출물량 감소(-4.2%)의 69%에 해당하는 -2.9%포인트 기여

〈그림 1-29〉 반도체 수출 추이

(a) 반도체 수출 증감률



(b) 반도체 수출기여도



자료: 무역협회.

□ 반도체 수출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

○ 반도체 수출은 직접적으로 당기 국내총생산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등의

총고정자본형성을 통해서도 장기간에 걸쳐 국내총생산에 영향

- 투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9.3%, 2022)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요하며, 그중 반도체산업의 설비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최근 반도체 업황 악화와 수출 부진 등과 관련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전산업 대비 설비투자 비중도 2021년 27.6%에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²⁾³⁾

* 2021년: 58.7조 원(27.6%) → 2022년: 54.6조 원(24.7%) → 2023년: 51.8조 원(24.1%)

○ 반도체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국내총생산의 한 구성요소로서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측정

- 반도체 산업의 투자를 통하여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 및 간접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

- 이에 본 고에서는 수출을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수출로 구분하고, 반도체 수출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내수, 특히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고려하여 반도체 수출 부진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

□ 실증분석 결과,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은 약 0.4% 감소

○ 반도체 수출 충격은 당기 국내총생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의 국내총생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충격이 발생한 분기의 국내총생산이 0.16% 감소

- 또한,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재고율 상승 등은 설비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다음 분기 국내총생산이 0.23% 감소

-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의 경우, 당기의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반도체 수출 충격보다 크지만, 누적효과는 반도체 수출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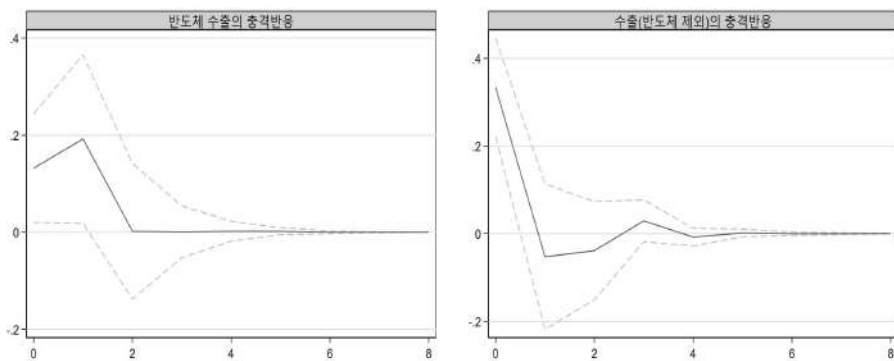
○ 반도체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둔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산업의 설비 투자 위축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최근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향후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설비투자 계획을 지연 및 취소하는 요인으로 작용

* SK하이닉스: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투자를 제외하고 전 영역의 투자를 최소화”

-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도체산업의 단기적인 수출 부진이 관련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의성(timing)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그림 1-30〉 반도체 수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2001~2023년 1/4분기)



자료: 오중석 외(2019)를 참고하여 구조벡터회귀(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통해 추정.

주: 충격반응은 반도체/비반도체 수출의 +1 표준편차(약 8.3%, 3.4%) 증가가 기간별로 국내 GDP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냄.

2)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3) 2022년은 잠정치, 2023년은 전망치

〈참고〉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요인 분석

□ 대중국 무역수지 및 수출입 현황

- 2023년 1~4월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고, 이는 동 기간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40% 수준
- 2022년 2분기에 대중국 수출이 감소로 전환된 후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
- 올 4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비 29.0% 감소한 391억 달러로 이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봉쇄로 양국 간 교역에 어려움이 있던 전년과 비교하여도 부진한 수준

〈표 1-20〉 대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연	분기	수출		수입		무역수지 (억 달러)
		증가율	전체 수출 대비 비중	증가율	전체 수입 대비 비중	
2021	1	25.1	24.9	28.1	22.5	57.3
	2	22.8	25.3	22.8	22.7	59.0
	3	19.8	25.4	30.3	22.1	70.9
	4	24.2	25.5	28.2	22.9	55.5
2022	1	15.5	24.3	18.1	20.4	58.4
	2	-1.0	22.2	21.3	22.3	-16.8
	3	-5.0	22.8	15.4	20.8	-3.3
	4	-22.9	21.8	-5.4	21.0	-26.2
2023	1	-29.8	19.5	3.1	21.5	-78.4
	1~4월	-29.0	19.4	1.2	21.7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IT 품목이 주도
-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선박류, 섬유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컴퓨터 -68.2%, 평판디스플레이 -52.5%, 반도체 -42.2% 등 크게 감소

- 특히 반도체는 여전히 대중국 수출 기여도가 가장 높지만, 최근의 부진으로 2022년 기준 33.4%에서 2023년 1~4월 기준 27.4%로 그 비중이 축소
- 이는 중국 정부의 공급망 내재화 정책과 더불어 최근 반도체 제품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

〈표 1-21〉 대중국 주력 품목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4월
컴퓨터	8.2	-29.9	17.3	-13.6	-41.1	-69.7	-69.4	-68.2
평판디스플레이	12.5	-16.6	13.1	-16.2	-34.2	-25.9	-52.8	-52.5
반도체	25.9	3.7	42.7	13.9	4.4	-31.7	-44.6	-42.2
자동차부품	7.8	-21.7	-10.5	-36.9	-12.8	-25.0	-34.0	-30.4
석유화학	43.3	-5.4	23.5	-0.7	-13.9	-23.5	-26.2	-25.3
철강제품	5.6	-6.4	6.7	-15.6	-6.5	-8.7	-23.9	-23.8
일반기계	14.6	-33.7	-25.8	-26.7	-38.2	-43.3	-22.3	-19.8
무선통신	68.1	48.8	82.6	57.7	49.4	26.4	-3.9	-13.2
석유제품	5.6	-35.5	-44.3	-51.7	-5.7	-20.3	-20.6	-12.5
가전	0.8	-6.8	-1.0	-14.2	11.2	-20.2	-12.6	-11.5
섬유류	7.1	-11.5	7.4	-13.2	-16.2	-19.6	-9.9	-8.7
선박류	-2.1	17.7	-8.9	55.3	12.4	4.6	34.1	11.3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중국 수입은 4월까지 1.2%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 리튬이온 배터리(105.9%),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477.1%), 스마트폰(102.9%) 등 이차전지와 IT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

- 대중국 수입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입금액이 여전히 가장 많지만, 동기 29.6% 감소한 가운데 국내 전기차 생산 증가로 인한 리튬배터리 수입이 동기 105.9% 증가면서 이차전지 수입 증가를 견인

- 2023년 4월까지 리튬배터리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약 95% 수준까지 상승한 한편, 1차 산품인 희토류 역시 대중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우리는 중국의 가격 변동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 공급망 편중 문제 등에 관한 관심이 필요

〈표 1-22〉 대중국 수입 상위 5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5대 수입품목(HS code)		2022		2023. 1~4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메모리	854232	18,529	12.4	4,354	-29.6
리튬이온 축전지	850760	5,386	73.7	2,829	105.9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282520	3,232	478.5	2,263	477.1
기타	282590	3,807	48.7	1,478	24.1
스마트폰	851713	2,826	0.0	1,041	102.9

자료: 한국무역협회.

□ 중국 중간재 자급률 향상은 가공무역 전환을 가속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

○ 대중국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 품목을 종합하면, IT를 포함한 고(高)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중간재 내재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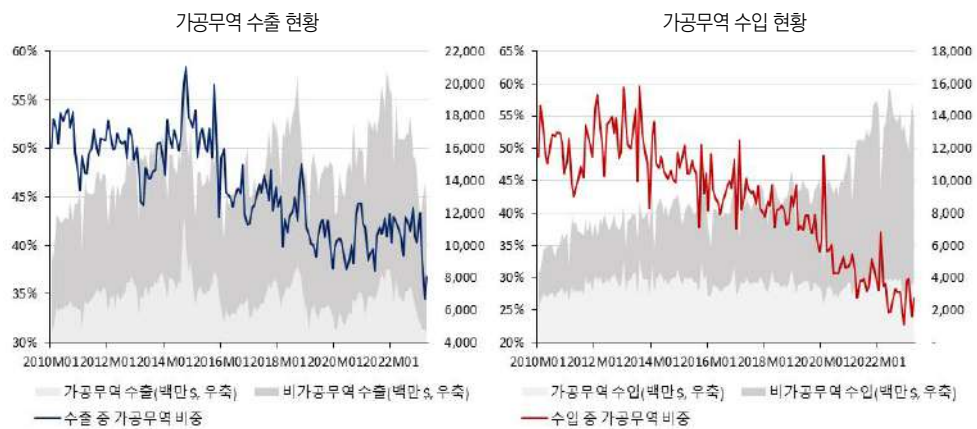
- 중국 중간재 자급률 향상이 한국의 GDP 감소 및 무역수지의 구조적 적자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한국은행, 2023⁴⁾; 현대경제연구원, 2015⁵⁾)
-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향상은 한국의 해당 품목 중간재 수출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대중국 중간재 조달 채널인 가공무역에서도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
- 중국산 중간재의 질적 향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중국산 중간재의 경쟁력 비교우위가 예상
- 국내기업은 기존 가공무역을 이용한 생산 네트워크를 중국산 제품 수입을 통한 비가공무역으로 전환하거나(아웃소싱), 생산기지의 제3국 이전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경우에도 대중국 무역수지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 대중국 가공무역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입 모두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가공무역 수출 규모가 최근 들어 급격히 축소된 모습

- 대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50% 내외였으나, 2023년 들어 비중 및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이며, 특히 2023년 4월 가공무역 비중은 37% 정도까지 축소

- 더욱이 최근 비가공무역 수입 규모의 확대는 중간재 수요분의 아웃소싱 전환 가능성을 시사

〈그림 1-31〉 대중국 가공무역 수출·입 추이



자료 : IHS.

□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대응 방안: 기술 개발 역량 강화, 공급망 다각화 시급

○ 중국 중간재 자급률 상승이 무역수지 감소에 구조적 충격으로 기능한다면, 국내 기업은 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기술격차 확대를 이룰 완화할 가능성

- 대중국 교역 내 가공무역 비중 감소는 대중국 수직 분업화 전략의 중심이 국내기업 관계회사에서 중국 기업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시사

-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는 경우, 대중국 비가공무역 수입 증가와 가공무역 수출 감소가 동시 발생하면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구조화될 수 있어 경계할 필요

-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교역구조를 재편해 나아갈 필요
- 기업 생산전략 측면에서는 생산비용 및 불확실성 관리 측면에서 중국 외 국가를 통한 분업 관계를 형성하는 등 공급망 다각화 노력이 시급
-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외에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높아진 중국 내 임금 수준 역시 대중국 수직 분업화 전략의 약화를 야기
-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역시 한·중 간 수직 분업화의 장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능
- 공급망 측면에서도 편중되고 획일적인 공급망 체계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국가를 이용한 공급망 형성이 긴요

4) 한국은행(2023),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영향 점검」, BOK 이슈노트 2023-11호.

5) 현대경제연구원(2015), “현안과 과제: 중국 경제의 자급률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 2015-25, pp. 1-8.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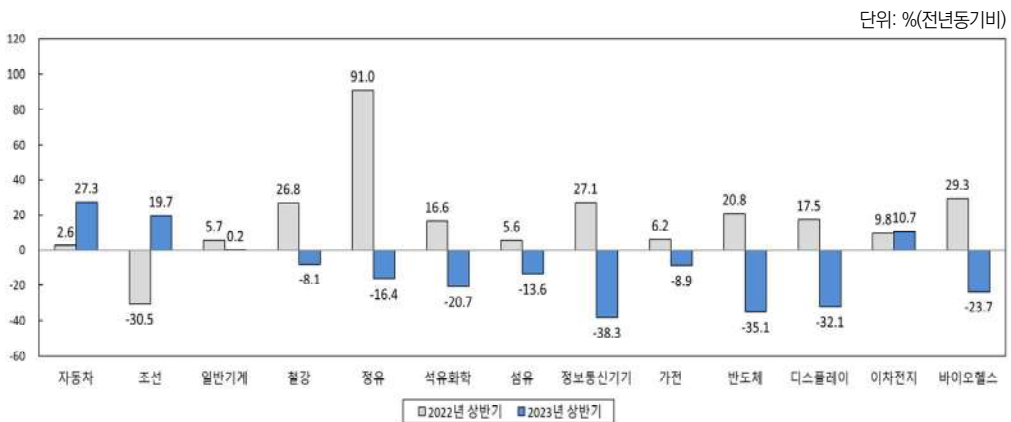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동향

□ 수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전년동기비 14.3% 감소

○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부진하여 전년동기비 14.3% 큰 폭 감소

〈그림 2-1〉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추정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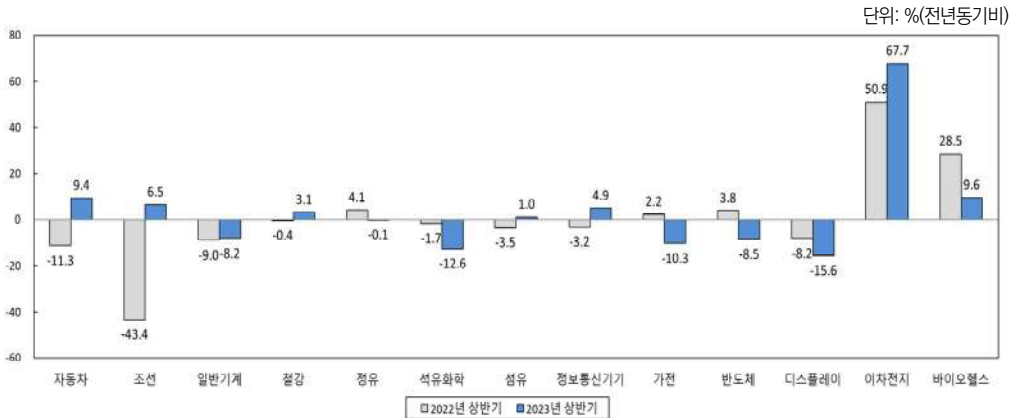
- (기계산업군) 자동차(27.3%), 조선(19.7%) 일반기계(0.2%) 모두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16.3% 증가
 -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부족이 완화되면서 완성차 공급이 정상화되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이연된 수요가 실현되면서 전년동기비 27.3% 증가한 459억 달러 (자동차부품 포함) 기록 전망
 - 조선 수출은 코로나19 이후 대량 수주받은 물량을 본격적으로 인도하면서 전년동기비 19.7% 증가한 99억 달러로 예상
 - 일반기계는 선진국 중심의 건설,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장비 및 가공·공작기계 수출 호조로 전년동기비 0.2% 증가한 263억 달러 규모로 추정
- (소재산업군) 상반기 수입수요 감소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36.7%) 증가에서 큰 폭의 감소(-15.7%)로 전환
 - 철강은 중국과 미국, EU 등 선진국 수요 회복은 지연되고 있으나, 일본 및 인도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물량은 전년동기비 1.2%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출단가가 10% 하락하여 수출액은 8.1% 감소 예상
 - 정유제품 수출액은 수출물량 증가(4.9%)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18%)으로 전년동기비 16.4% 감소
 - 수출물량은 항공유 중심의 운송용 석유제품의 글로벌 수요 확대로 4.9% 증가
 - 수출단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유가 하향 안정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비 약 18% 하락
 - 석유화학 역시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 및 국내 생산 감소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와 동아시아 석유화학시장 내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20.7% 감소
 - 섬유산업 상반기 수출은 전년 2분기 이후 이어진 글로벌 경기 둔화 가속화로 전년동기(5.6%) 증가에서 -13.6% 감소로 전환

- (IT신산업군) 글로벌 수요 부진 지속으로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21.0%) 증가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31.6% 증가율 기록
 -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부품 수출이 비교적 양호했지만, 세계 스마트폰 및 SSD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비 38.3% 대폭 감소
 - 가전 수출은 경기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가 비교적 낮은 감소폭을 보였으나, 전년동기 수출 호조(6.2%)로 인한 기저효과로 8.9% 감소
 -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상반기까지 지속되어 전년동기비 35.1% 큰 폭 감소
 -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IT 전자기기 수요 위축에 따른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과 2022년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690억 달러 이후) 달성의 기저효과로 큰 폭의 감소 기록
 -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한 전자제품 수요 위축과 전년동기 수출 호실적(17.5%)에 대한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어 전년동기비 32.1% 급감
 - 이차전지 수출은 미국향 리튬이온전지 수출물량 증가 및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전년 동기(9.8%) 대비 10.7% 증가한 2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바이오헬스 수출은 2022년 하반기에 가시화된 코로나19 백신 및 진단키트의 수출 부진이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면서 총수출액은 전년동기비 23.7% 감소

□ 내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대내 부정적 여건 우세로 회복세 지연

- 자동차(9.4%), 조선(6.5%), 정보통신기기(4.9%), 이차전지(62.3%), 바이오헬스(9.6%)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세(일반기계, 석유화학, 디스플레이)가 지속되거나 감소 전환(정유, 가전, 반도체)하는 등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는 모습
- (기계산업군) 자동차(9.4%)는 차량 공급 정상화, 조선(6.5%)은 인수물량 확대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8.2%)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감소

〈그림 2-2〉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추정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자동차 상반기 내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경색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실적 부진(-11.3%)에 따른 기저효과와 차량공급 정상화로 인해 누적된 이연수요가 실현되면서 전년동기비 9.4% 증가한 88만 4,000여 대를 기록할 전망
- 조선 내수는 국내 해운사의 인수량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비 6.5% 증가한 82만 CGT로 예상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 생산감소 및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비 8.2% 감소
- (소재산업군) 철강(3.1%), 섬유(1.0%)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정유(-0.1%)와 석유화학(-12.6%)은 수요산업 업황 부진으로 감소
- 철강은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 실적 호조로 전년동기비 3.1% 증가한 2,859만 4,000톤 규모로 추정
- 정유는 항공유를 중심으로 휘발유, 경유 및 윤활유 등의 수요는 확대된 반면,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축소로 석유제품 전체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프타 및 LPG 수요가 부진하여 전년동기비 0.1% 감소
- 석유화학은 20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와 전방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화학제품 중간재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비 12.6% 감소

- 섬유 내수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의류소비가 늘어 전년동기비 1.0% 소폭 증가

○ (IT산업군) 정보통신기기(4.9%), 이차전지(67.7%), 바이오헬스(9.6%)는 증가한 반면, 가전(-10.3%), 반도체(-8.5%), 디스플레이(-15.6%)는 부진 심화

- 정보통신기기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및 PC 시장이 위축되었지만,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교체수요와 SSD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비 4.9% 증가 추정

- 가전 내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경기 둔화와 가파른 금리·물가 상승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동기 판매 호조(2.2%)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10.3%를 기록하며 내수 감소세 심화

- 반도체 내수는 글로벌 PC 시장이 위축되면서 반도체 수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SSD 등 가공 제품 생산 부진으로 전년동기(3.8%) 증가에서 -8.5% 감소로 전환

- 디스플레이 내수는 수요산업인 가전산업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패널 완제품 및 관련 소재·부품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기(-8.2%) 대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15.6% 감소 전망

- 이차전지 내수는 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국내 친환경차 판매량이 전년동기비 43.7%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 판매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기비 67.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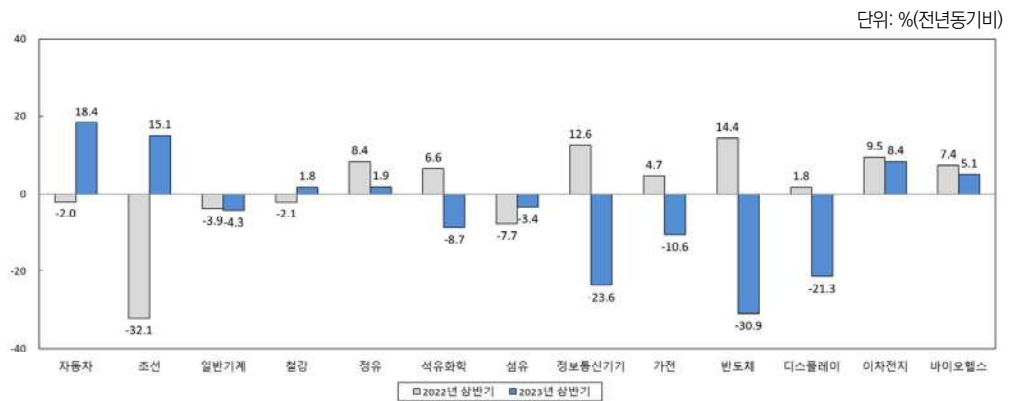
- 바이오헬스 내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야외활동 재개로 급성 호흡기질환 및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해열제, 치료제 등 관련 의약품과 위생용품 소비가 늘어 전년동기비 9.6% 증가

□ 생산: 대외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정보통신기기(-23.6%), 가전(-10.6%), 반도체(-30.9%), 디스플레이(-21.3%) 등 IT산업군에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

○ (기계산업군) 자동차(18.4%)와 조선(15.1%) 생산은 전년동기 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로 전환했지만, 일반기계(-4.3%)는 내수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자동차 생산은 지난 2년간 지속되어 왔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년동기비 18.4% 큰 폭으로 증가한 210만 6,000여 대를 기록할 전망
 - 조선은 코로나19 이후 대량으로 수주한 물량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전년동기비 15.1% 증가한 495만 CGT 추정
 - 일반기계는 상반기 수출이 소폭 증가(0.2%)하였으나, 주요 수요산업 경기 위축으로 내수가 크게 부진하여 전년동기비 4.3% 감소 추정
- (소재산업군) 철강(1.8%)과 정유(1.9%)는 내수 및 수출 물량 확대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석유화학(-8.7%)과 섬유(-3.4%)는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생산물량 감소
- 철강 생산량은 지난해 발생한 포스코의 태풍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고,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수요산업 생산 확대로 전년동기비 1.8% 증가한 3,680만 6,000톤 규모로 추정
 - 정유 생산량은 항공유 수요 확대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체 수요가 지속되고, 글로벌 정제마진 호조로 국내 정제시설 가동률이 85% 이상으로 유지되어 전년동기비 1.9% 증가
 - 석유화학은 생산시설 정기보수 연장에 따른 가동률 하락과 국내외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8.7% 감소

〈그림 2-3〉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추정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섬유는 대외 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13.6%)하여 가동률이 하향 조정되고, 국내 주요 화섬사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에 따른 사업 정리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전년동기비 3.4% 감소
- (IT신산업군) 이차전지(8.4%)와 바이오헬스(5.1%) 생산은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나, 그 외 산업들은 국내외 수요 둔화로 큰 폭으로 감소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주력 품목인 SSD 수출의 큰 폭 감소와 스마트폰 및 부품의 해외생산 확대로 전년동기비 23.6% 감소 추정
 - 가전은 2022년 하반기 수요 급감에 따른 재고 누적과 국내외 수요 감소 지속 및 해외생산 비중 증가로 전년동기비 10.6% 감소
 -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상반기 역대 최고 생산 실적 달성에 따른 기저효과와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 영향으로 전년동기(14.4%) 증가에서 -30.9% 큰 폭의 감소로 전환
 - 디스플레이 생산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주요 제품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21.3% 감소
 - 이차전지 생산은 국내외 이차전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생산설비 효율화,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의 투자 강화를 통한 국내 생산 확대에 주력하여 전년동기비 8.4% 증가
 -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시밀러 수출 회복과 위탁생산(CMO)시설 확대로 전년동기비 5.1% 증가

□ 수입: 단가 하락 및 내수 둔화로 전년동기(20.0%) 증가에서 -9.6% 감소로 전환

- (기계산업군) 조선(-24.3%)과 일반기계(-1.3%)가 감소했지만, 자동차(15.1%)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비 3.5% 증가
 - 자동차 수입은 공급물량 증가로 누적된 이연수요가 실현되고, 수익성이 좋은 전동차 판매 확대로 전년동기비 15.1% 증가한 120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조선은 해양플랜트 블록이 증가하고 선박 생산 확대로 기자재도 꾸준히 유입되나, 해운사의 선박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비 24.3% 감소한 12억 달러 내외로 추정

- 일반기계 수입은 전년동기 수입액 증가(1.1%)의 기저효과와 국내 제조업 경기 부진 등 전반적인 여건 악화로 전년동기비 1.3%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내수 부진 및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25.3%) 증가에서 -13.8% 큰 폭의 감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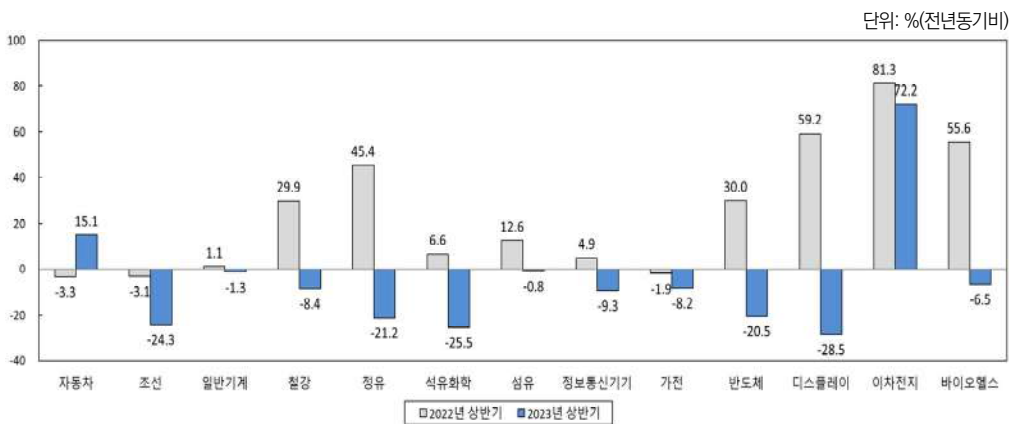
- 철강은 중국산 저가 수입재 유입으로 전년동기비 7.9% 증가(509만 1,000톤)했으나,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액은 8.4% 감소

- 정유 수입 물량은 전방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생산 축소로 전년동기비 0.5% 감소하였으나, 수입액은 수입 물량 축소 및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비 21.2% 급감

- 석유화학 역시 내수 부진 및 단가 하락세 지속으로 수입 물량과 수입액은 전년동기비 각각 7.3%, 25.5% 감소

- 섬유는 의류 내수 확대로 의류 수입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국내 생산이 줄면서 생산투입용 섬유소재의 수입수요가 다소 줄어 전년동기비 0.8% 소폭 감소

〈그림 2-4〉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추정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IT신산업군) 이차전지(72.2%)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비 11.9% 감소
 - 정보통신기기는 SSD, 유선전송장치 수입이 증가했지만, PC 또는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하면서 전년동기비 9.3% 감소 추정
 - 가전 수입은 2022년 상반기부터 감소(-1.9%)로 전환했고, 이후 내수 감소세가 본격화되면서, 전년동기비 -8.2%로 감소폭 크게 확대
 - 반도체는 국내 반도체 내수 및 수출 부진과 지난해 상반기 대량의 반도체 수입(30.0%)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20.5% 급감
 - 디스플레이 수입액은 패널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비 28.5% 큰 폭으로 감소한 15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 이차전지 수입은 친환경차 판매 증가 대응을 위해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중국 공장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비 72.2% 증가하여 수입 급증세 지속
 - 바이오헬스 수입은 백신접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2022년 완제의약품 수입 중 상위를 점유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수입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비 6.5% 감소

2. 2023년 하반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대외 여건 변화: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및 금융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 (세계수요 여건) 친환경 및 고령화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친환경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수요는 하반기에도 견조한 흐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고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러·우 전쟁 장기화 및 기술패권 경쟁 확산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수요 회복을 제약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고사양 프리미엄 정보통신기기(고사양 노트북, 5G 폴더블폰 등)와 스마트가전, OLED 패널 등 프리미엄 ICT 제품은 하반기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지속될 전망

-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탄소중립의 중요성 증대로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이차전지 등의 수요 역시 성장세 유지 전망

〈표 2-1〉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세계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누적된 이연 수요 실현	↕↕
	·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위축	↕
조선	· 해운 시황 악화와 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해운사의 관망세 지속	↕
	· 높은 금리 및 금융 불안으로 인한 선박금융 조달 어려움	↕
	· 주요 우량조선사의 풍부한 수주잔량으로 고선가에 선별 수주 지속과 높은 원자재 가격	↕
	· 카타르 LNG 발주 지속과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 확대	☀
일반기계	· 세계 경기(주요 시장 중심) 회복 불확실성에 따른 제조업 성장 둔화	↕
	· 중국 경제의 제한적 성장세 및 대외 수요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
	· 수요산업(이차전지 등) 해외 현지 생산기지 신·증설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
철강	· 하반기 세계 경제성장 기조	↕
	· 미국 등 주요국 금융시장 불안정성 지속	↕
	·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	☀
	·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
정유	·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항공유 수요 확대 추세 지속	☀
	·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용 수요 감소	↕
	·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지속	↕
	·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증가	☀
	· 비OECD 국가의 석유 수요 확대	☀
석유화학	· 주요국 경제성장률 및 수요산업 업황 둔화	↕
	· 고유가, 고에너지가격(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
	· 기저효과	↕
섬유	· 은행 위기,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세계 경기의 제한적 성장 및 의류 소비 부진	↕
	·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	☀
	·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화에 따른 고기능성 섬유소재 수요 확대	☀
정보통신기기	· 세계 경제 침체(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이 지속되나, 하반기에는 소폭 개선될 전망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은행 위기 문제 등 불확실성 요인 상존	↕
	· 하반기에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세계 PC 및 기업용 SSD 수요 부진 지속	↕
	· 세계 스마트폰 시장 회복세 전망	☀
	· 프리미엄 제품(고사양 노트북, 폴더블폰, 카메라 모듈 등 고급형 부품 등) 수요 증대	☀

(계속)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정보통신기기	·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요(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투자 등) 부진 지속	↕
	· 소비자용 SSD 수요는 채고가 안정화되면서 개선될 전망	☼
가전	·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	↕
	· 기저효과 및 2023년 하반기 수요 회복	☼☼
	· 프리미엄(친환경·고효율·스마트) 제품 수요 증가	☼
반도체	· 챗지피티(ChatGPT)/챗봇(Chatbot) 등 AI 신기술 확대	☼
	· DDR5 보급 및 신세대 서버 수요 증가	☼
	· 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국제정세 불안	↕
	· 전년 실적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	↕↕
디스플레이	·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회복 지연	↕
	· 태블릿, 노트북 OLED 채택 확대	☼
	·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둔화	↕
이차전지	· 친환경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배터리 수요부문 성장세 지속	☼☼
	· IRA 등 미국의 친환경차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추진	☼
	·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 또는 완화 조치	↕
바이오헬스	· 미국 시장 내 블록버스터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 경쟁 서막	☼☼
	· 전 세계적인 엠폭스 확진자 증가	☼
	· 헬스케어 및 고령화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수요 확대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세 미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

- 대미 수출은 자동차(이연수요), 일반기계(인프라 투자 확대), 정보통신기기(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 가전(소비심리 회복), 이차전지(전기차 판매호조), 바이오헬스(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 등에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유럽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의 경기 불안으로 수요 회복세 미약
- 우리 중간재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코로나 정책 완화로 내수 경기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가전 등에서 5% 내외의 제한적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반기계는 하반기에도 큰 폭의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

〈표 2-2〉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국가	비중 ¹⁾	전망	국가	비중	전망	국가	비중	전망
자동차	미국	39.1	☼	EU	18.8	☹	호주	4.4	☼
일반기계	미국	22.9	☹	중국	17.0	↑	유럽	14.4	☼
철강	북미	12.0	☹	EU, 러시아	12.0	☹	중국	13.0	☹
정유	중국	10.6	☼	미국	8.7	☹	아시아 (중국 제외)	70.0	☹
석유화학	중국	38.0	☹	아세안	10.0	↑	기타	44.0	↑
섬유	베트남	20.4	↑	미국	13.6	↑	중국	12.6	☹
정보통신기기	중국	30.9	☹	미국	23.4	☹	EU	16.1	☹
가전	미국	48.3	☹	일본	6.4	☹	중국	6.1	☼
반도체	중국	39.8	↑↑	홍콩	14.8	↑↑	베트남	12.4	↑↑
디스플레이	베트남	59.2	↑	중국	30.4	↑	기타	-	-
이차전지	미국	41.2	☼	독일	10.4	☹	중국	6.0	☹
바이오헬스	EU	20.7	☹	미국	14.9	☹	일본	8.6	☹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2년 기준).

2)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해외 생산 전망) 산업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반기 주요 수출 시장의 수요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거점 국가에서의 현지 생산과 투자는 증가할 전망

- 자동차는 부품 공급망 정상화가 예상되고 누적된 이연수요 충족을 위해 대부분의 해외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할 전망이나, 중국 현지 생산은 러시아와 로컬업체의 경쟁력 상승으로 판매 부진이 지속되어 감소 예상
- 조선은 2023년 국내 건조 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블록 제작 협력사의 생산 증대 어려움으로 인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중국 블록공장의 생산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
- 철강은 유럽과 중국의 수요산업 일부 회복, 아세안, 북미 등 유망 수요 지역에서의 현지 생산 확대 영향으로 소폭 성장 예상
- 정보통신기기는 상반기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폰 및 부품 해외 생산이 하반기 수요 회복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

- 가전 해외 생산은 국내보다 수출경쟁력 우위를 갖춘 동남아,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증가 예상
- 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부진 영향으로 중국 내 소비 및 수출이 감소하여 중국 현지 생산은 축소될 전망
- 디스플레이는 OLED 수요 확대로 중국 광저우 현지 생산 증가 전망
- 이차전지 하반기 해외 생산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미국, 유럽(폴란드, 헝가리) 등 해외 생산기반 확대 추세가 지속됨에 확대 전망
-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미미하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신규 생산공장 설립으로 글로벌 생산망 확대 추진

〈표 2-3〉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전망

	해외 생산기지(생산 전망)
자동차	중국(↑) 미국(☆) 브라질/멕시코(●) 러시아/체코/슬로바키아(↑) 튀르키예(↔) 인도(☆)
조선	중국(☆☆) 베트남(☆)
일반기계	중국(↑) 미국(☆☆) 인도(☆☆)
철강	유럽(↔) 아세안(↔) 북중미(↔) 중국(↔)
석유화학	중국(↔) 아세안(↔) 미국(●)
섬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정보통신기기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가전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 중국(↔) 미국(☆)
반도체	중국(↑↑) 미국(●)
디스플레이	중국(↔)
이차전지	미국(☆) 유럽(↔) 중국(↔)
바이오헬스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주: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국내 여건 변화: 내수는 제한적 회복세, 공급능력은 점진적 확대 전망

○ (국내 수요 여건) 대내외 경제성장률 둔화,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수요산업 부진 등이 내수 회복 흐름을 제약할 가능성

- 자동차는 하반기 누적된 수요가 상당 부분 실현되고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신규 수요 유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
- 조선은 해운 시황 악화와 환경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높은 금리와 금융 불안에 따른 선박금융 조달 어려움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국내 발주는 감소할 전망
- 철강은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가 하반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투자 역시 하반기 0.2% 성장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어 내수 위축 전망
- 정유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항공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산업용 수요 위축으로 내수 증가는 제한적
- 석유화학은 주요 전방산업 중 ICT 관련 산업들과 건설산업의 업황 부진이 내수 감소를 견인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 둔화의 영향이 점차 약화하고, 하반기 신규 국산 및 외산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수요 증가로 수요가 소폭 개선될 전망
- 가전은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점진적 회복세를 보여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하반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
- 반도체는 수요산업이 하반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수 감소세 심화 전망
- 이차전지는 2023년 하반기에도 국내 친환경차 판매 증가세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이차전지 수요도 증가할 전망
- 바이오헬스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국내 허가와 첨단 의료장비 도입 및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로 내수 활성화 기대

〈표 2-4〉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물가 및 금리 인상 등 소비심리 위축	⬇️
	· 차량 구매 할부금융 및 차량 가격 인상	⬇️
	· 2년간 차량 공급 차질 반복으로 누적된 지연수요	☀️☀️
조선	· 해운 시장 악화와 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해운사의 관망세 지속	⬇️
	· 높은 금리 및 금융 불안으로 인한 선박금융 조달 어려움	⬇️
	· 주요 우량조선사의 풍부한 수주진량으로 고선가 중심 선별 수주 지속과 높은 원자재 가격	⬇️
	· 카타르 LNG 발주 지속과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 확대	☀️
일반기계	·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계류 투자수요 감소	⬇️
	· 대내외 여건 악화로 국내 경기회복세 미약	⬇️
	· 수요산업 내수 및 수출 둔화	⬇️
	·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기기 투자 확대	☀️
철강	·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
	· 설비 및 건설 투자 부진	⬇️
	·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
정유	· 엔데믹에 따른 항공유 수요 확대	☀️☀️
	· 석유화학 제품용 나프타 및 LPG 수요 회복 둔화	☀️
	· 유류세 환원 및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
석유화학	· 국내 경제성장률(소비) 둔화	⬇️
	· 국내 수요산업의 생산 부진	⬇️
	· 건설경기 소폭 개선 기대	☀️
섬유	· 경기 성장세 둔화, 부동산 시장 불황, 물가 및 금리 상승 등 소비심리 위축	⬇️
	· 국내 제조활동 둔화에 따른 산업용섬유 수요 둔화	⬇️
	· 경기 부진에 따른 불황형 소비 확대로 중저가 의류 소비 증가	☀️
	·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
정보통신기기	· 국내 경기 둔화(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하반기에 개선될 전망	☀️
	· 프리미엄 제품의 높은 가격대 형성 및 통신비 부담	⬇️
	· 국산 및 외산 신제품 출시 효과로 프리미엄급 제품 중심으로 교체 수요 증가	☀️
	·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지속 전망	☀️
가전	· 소비심리 회복	☀️
	· 2022년 상반기까지 최대 수요 달성에 따른 교체수요 감소	⬇️
	·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
반도체	· 국내 수요산업 부진	⬇️⬇️
	· AI, IoT,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성장	☀️
디스플레이	· IT용 기기 및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	☀️
이차전지	· 국내 친환경차 판매량 증가	☀️☀️
	· 국내 친환경차 세제혜택(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2024년까지 연장) 강화	☀️

(계속)

	주요 요인	영향 정도
바이오헬스	· 비만치료제 및 당뇨병 치료제 시장 확대	☆☆
	· 중입자치료기를 활용한 항암치료 시작	☆
	·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공급능력 여건) 공급망 정상화(자동차), 생산설비 신증설 및 가동률 향상(정유, 석유화학), 투자 확대(이차전지, 바이오헬스)에 힘입어 공급능력 향상이 기대되나,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인력 부족(조선) 및 해외 생산 확대(가전)로 공급능력 위축 우려
- 자동차는 공급망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생산은 정상화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지난 2년간 저조했던 가동률 만회를 위한 신규 모델 생산 계획 수립
 - 조선은 생산인력의 심각한 부족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정상화, 내국인 인력의 증가로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수주물량 누적으로 인해 인력 부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일반기계는 수출 둔화 및 내수 판매 급감에 따른 재고 누적으로 공급능력 위축 전망
 - 정유·석유화학은 설비 신증설 완료 및 가동률의 상향 조정으로 공급능력 향상 전망
 - 섬유산업 생산능력은 코로나19 이후 투자 부진으로 범용제품은 감소하고 있으나, 화섬업체 중심으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첨단 섬유소재의 수요 확대에 대응해 슈퍼섬유 관련 대규모 설비 증설 투자로 생산능력은 지속 확대
 - 정보통신기기·가전은 글로벌 생산거점 확립으로 국내 공급능력 영향은 미미
 - 반도체는 지난 하반기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설비투자를 조정하고 있으나 공급능력은 쇠퇴하지는 않은 상황
 -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시장의 후발 주자인 삼성이 OLED TV 판매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에 대응하여 생산 규모를 지속 확대
 - 이차전지 공급능력은 기존 생산설비의 효율화·합리화 투자와 더불어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내 신규 투자가 완료되면서 공급능력 확대를 견인
 - 바이오헬스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확대 및 신약 연구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공급능력 증가

〈표 2-5〉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해소	☼☼
	· 중견 완성차업체 실적 부진 만회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모델 투입	☼
	· 하반기 이후 누적 이연수요 실현에 따른 차량 수요 감소 예상	☂
조선	· 급격히 증가하는 건조 물량 대응	☼☼
	· 대우조선해양 매각 완료에 따른 정상화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
	· 외국인과 내국인 유입으로 기능인력의 심각한 부족은 완화되더라도 부족 영향 지속	☂
	· 외국인, 비숙련 인력 증가에 따른 생산효율 저하 및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생산·투자 차질 가능성	☂
일반기계	· 생산 및 수출 감소에 따른 기계산업 내 설비투자 감소	☂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생산 효율화 자동화 투자 증가	☼
철강	· 기업 수익성	☂
	· 제품 전환 위한 신증설	☼
정유	· 공정개선 및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	☼
	·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 글로벌 정제마진 감소	☂
석유화학	· (국내외) 생산시설 신증설 완료	☼
	· 생산시설 가동률 상향 조정	☼
	· 제품 스프레드 회복	☼
섬유	· 첨단소재 설비투자 확대	☼
	· 생산 효율화(생산시스템 개선)	☼
	· 섬유 경기 불황에 따른 감소 및 폐업 등 공급 감소	☂☂
	· 국내 생산설비 해외 이전	☂
정보통신기기	· 하반기 부진했던 해외 생산(인도, 베트남 등) 가동률 상승 전망	☼
	· 스마트폰 수요 개선으로 중국 ODM 생산 증가 전망	☂
	· 누적된 재고가 하반기부터 해소되면서 생산에 긍정적 작용 예상	☼
가전	· 코로나19 종식으로 해외공장 가동 정상화(국내 생산 감소)	☂
	· 국내외 수요 감소에 따른 국내 공장 가동률 하락	☂
	· 스마트공장 구축	☼
반도체	· 글로벌 반도체 경기 둔화로 인한 설비투자 지연	☂
	· 반도체 단가 안정화를 위한 인위적인 감산	☂
	· 수율 향상과 미세화 전환 등 생산기술 발전에 따른 공급능력 확충	☼
디스플레이	· 대형 OLED 양산 규모 확대	☼
	· LCD 생산 설비 축소 지속	☂
이차전지	· 국내 기업의 배터리 공장 신·증설, 기존 생산설비 효율화·합리화 투자 지속	☼☼
	·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배터리 공급망 구축 강화	☂
바이오헬스	·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및 플랫폼 기술 투자	☼☼
	·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둔 생산시설 확충	☼
	·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기업 생산시설 유치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3.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대외여건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기 회복세 제약으로 전년동기비 4.3% 감소 전망

○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주요 수출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둔화로 조선(50.8%), 철강(3.8%), 이차전지(9.2%), 바이오헬스(3.6%)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하여 전년동기(-3.2%)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4.3% 증가율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0.2%)와 일반기계(-0.3%)는 수출이 부진하지만, 조선(50.8%)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6.6% 증가 전망

- 자동차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누적된 이연수요의 상당 부분이 실현되고 고금리, 경기불안 요인으로 신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년동기비 0.2% 증가한 413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 예상

- 조선 수출은 상반기(19.7%)에는 생산 지연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적었으나, 하반기에는 인력 충원으로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전년동기비 50.8% 증가 예상

· 다만 상반기와 같이 납기 조정이 발생할 경우, 수출이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상존

- 일반기계는 대미, 대유럽 수출은 하반기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여 전년동기비 0.3% 소폭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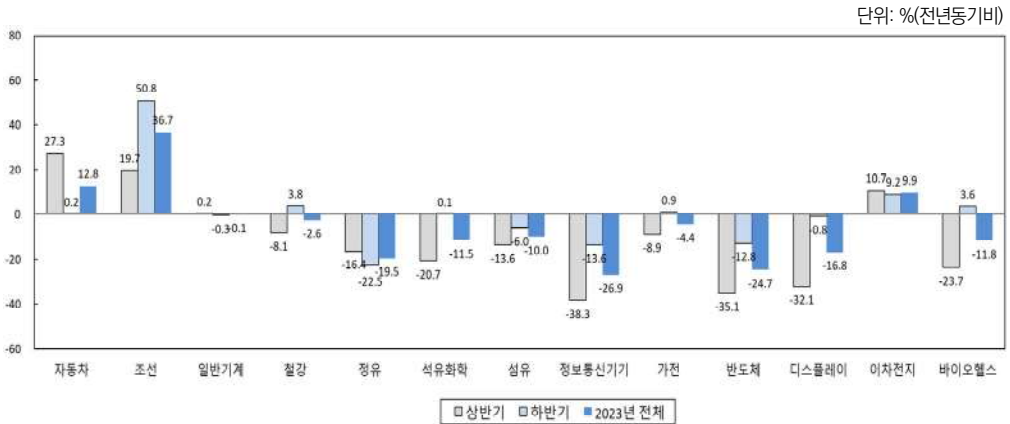
○ (소재산업군) 단가 하락 및 수입수요 둔화로 전년동기(2.4%) 증가에서 감소(-8.6%)로 전환

- 철강은 중국의 감산에 따른 반사이익, EU 제조업 생산 회복세로 수출물량(3.4%)과 수출액(3.8%) 모두 증가 전망

- 정유는 엔데믹에 따른 항공유 중심의 석유제품 수요 확대 및 비OECD 국가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전년동기 수출물량(9.6%) 확대의 기저효과와 수출단가 및 정제마진의 동반 감소로 수출물량(-1.0%)과 수출액(-22.5%) 모두 감소 전망

- 석유화학 수출량은 동아시아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증가와 중국 향 수출 회복으로 1.9% 증가가 예상되나,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0.1% 증가에 그칠 전망

〈그림 2-5〉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섬유는 지정학적 위험,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고금리 및 고물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의 악재로 전년동기(-12.7%)에 이어 수출 감소세(-6.0%) 지속

○ (IT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13.6%)와 반도체(-12.8%) 부진으로 감소(-8.9%) 지속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다소 약화되면서 수요가 개선되고 누적된 재고 해소, 신제품 출시 및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비 -13.6%를 기록하며 상반기(-38.3%) 대비 감소세 완화 전망

- 가전은 세계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가운데, 2022년 하반기(-19.6%)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0.9%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둔화 지속으로 회복세 지연

-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부진(-12.8%)이 예상되지만, 최근 월별 반도체 수출 실적이 최저점을 지나고 있고, 고부가 제품 확산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설비 교체 및 신규 수요 확대에 상반기(-35.1) 대비 호전될 전망

-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회복 지연으로 전년동기비 0.8% 감소 전망

- 이차전지는 대미 수출 확대에 증가세는 지속되나 상반기(10.7%)보다 소폭 축소된 9.2% 증가 전망

- 원자재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낮아지고 유럽의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폐지에 따른 일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생산능력이 하반기에 증가하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견조한 수요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9.2% 증가한 57억 3,200만 달러 전망
-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글로벌 수요 확대와 국내 위탁생산(CMO)기업의 선제적 투자에 따른 생산설비 확대, 해외 영업망과 네트워크 확보로 전년동기비 3.6% 증가 전망

〈표 2-6〉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일본 등 경쟁업체 공급 부진 · 중견 3사 공급 확대 · 전동차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미국 등 소비심리 위축, 금리인상으로 신차구매 수요 감소 · 누적된 대기 수요 소진 ·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 대기물량과 경쟁업체 부진 등으로 상반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미국, 유럽시장 차량 수요 감소와 전년 동기 실적호조에 대한 역기저로 하반기 정체 예상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이후 대량 수주물량의 본격적인 인도 · 고가의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LPG운반선 인도 증가 · 2021년 선가 상승한 수주물량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부족 완화에도 절대적인 기능인력 부족 및 중대재해 발생시 생산 차질 우려 · 해운시황 악화 및 러시아 제재로 인한 인도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이후 대량 수주물량과 2021년 높은 선가에서 수주한 물량의 본격 인도로 크게 증가하나, 생산인력 부족 완화에도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여 수출 차질 우려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인도 등 정부 주도의 건설 인프라 투자 지속 · 기수주한 국내 기업의 EPC 프로젝트에 따른 기계류 수요 증가 · 수요산업(이차전지) 해외 생산 공장 신·증설 및 생산장비 발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 및 경기 회복 흐름 약화로 주요 수요국의 제조업 경기 악화 · 대중국 수출 감소세 지속 · 대러시아 수출통제(건설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및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소폭 감소 전망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등 신흥국의 견조한 수요 · 중국의 감산기조 및 경기부양 · 중국의 경기부양책 · 전년도 실적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 수출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기저효과 등 증가요인 우위로 소폭 증가 예상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유 중심의 석유제품 수요 확대 · 비OECD 중심의 수요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정체 · 수요 우위 추세 완화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 · 전년도 기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 하락 및 기저효과로 인한 감소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생산시설 가동률 상승 ·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시장 공급 과잉에 의한 수출단가 하락 · 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국산제품 수입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량 소폭 증가 ·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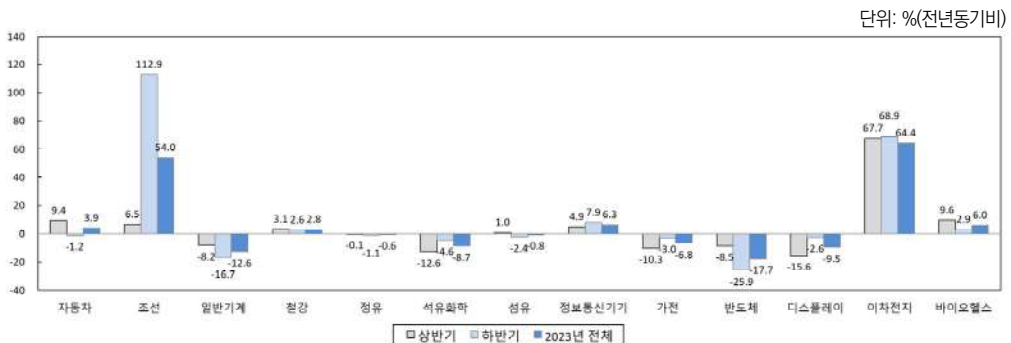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슈퍼섬유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산 의류 소비 증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본격화로 내수 개선에 따른 의류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국 통화 긴축 및 세계 경기 성장세 둔화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소비 둔화 러-우 사태, 미국 은행 파산 위험 등 불확실성 상존 글로벌 산업생산 부진으로 산업용섬유 수요 위축 해외 생산 확대 수요 위축에 따른 경쟁국간 글로벌 경쟁 심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베트남,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의 수출 감소에 따른 국산 소재 수입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및 소비 위축에 따른 의류 소비 감소, 글로벌 수요산업 부진으로 산자용 섬유 수요 부진으로 수출 감소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제품(폴더블폰 등) 출시 고급형 폰 시장 및 부품(카메라모듈 등) 수요 회복 디지털 전환 및 AI 수요 확대로 하반기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PC 수요 부진 및 모바일 시장 성장세 둔화 공급과잉 및 해외생산 확대 단가(SSD 등) 하락 소비자용 SSD 시장 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겠지만, 시장수요 회복과 신제품 출시효과 등으로 수출이 점차 개선될 전망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미엄 및 고효율 제품 수요 증가 제품단가 상승 주요 수출국의 수요 회복 기대 2022년 하반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물류 정상화로 수출 비용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및 경쟁 심화에 따른 해외 생산 비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미엄 및 고효율 제품 수요와 하반기 수요 회복세로 수출 증가 전망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DDR5의 본격적인 보급 시작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의 설비 교체 시를 비롯한 첨단 기술 응용 서비스의 확대 서버 교체 및 신규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 IT 제품 교체 주기 연장 개인 소비 심리 둔화로 전자제품 등의 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반도체 수요 산업인 PC, 스마트폰 등의 세계 시장 부진으로 우리 반도체 수출도 감소 교부가 제품 보급 및 신서비스 확대에 수출 증가도 가능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미엄 패널(폴더블, LTPO) 채택으로 가격 상승 태블릿 OLED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OLED 점유율 상승 세계 경기둔화 지속으로 인한 수요 회복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미엄 제품 수요 부진으로 감소 지속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수출국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 지속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 생산개파 일부 상황 조정 가능성(LG에너지솔루션 오창 1, 2공장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향 조정 가능성 유럽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유럽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감소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내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배터리 판가 하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대수출국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전망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장려로 글로벌 수요 확대 국내 위탁생산기업의 공급역량 향상 미용·성형시장 회복으로 보톡스·임플란트 수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키트 리콜에 따른 신뢰도 저하 주요국의 원료약품 자급화 및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의약품 수출은 증가하나 진단키트 수출 부진과 해외 마케팅 성패에 따라 증가폭 조정

□ 내수: 수요산업 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다수 산업에서 회복 지연

- 조선(112.9%), 정보통신기기(7.9%), 이차전지(68.9%)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감소세 (자동차,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지속하거나 성장세 둔화(철강, 바이오헬스) 전망
- (기계산업군) 조선을 제외한 자동차, 일반기계는 내수 감소세 지속 전망
 - 자동차 내수는 하반기 누적된 이연수요 실현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면서 전년동기(7.8%)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여 전년동기비 1.2% 감소한 86만 8,000대 전망
 - 조선 내수는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LNG운반선 8척과 중국으로부터 벌크선과 페리선이 인도될 예정이어서 전년동기비 112.9% 큰 폭 증가 전망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악화 우려와 함께 전년동기 내수 확대(5.2%)의 기저효과로 하반기 내수는 전년동기비 16.7%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수요산업 업황 부진 및 민간소비 둔화로 내수경기 위축 지속 전망
 - 철강 내수는 조선업을 제외한 대다수 수요산업의 부진 또는 정체가 예상되며, 건설 및 설비투자 역시 하반기에 감소할 전망이나, 전년동기(-16.9%) 내수 급감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2.6% 증가한 2,403만 5,000톤 규모 예상

〈그림 2-6〉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정유 내수는 여행 수요 확대에 항공유 및 휘발유 중심의 운송용 석유제품 수요는 증가하나,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용 석유제품 수요 둔화로 전년동기비 1.1% 감소 전망
 - 석유화학은 전방산업 수출 부진과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4.6% 감소 전망
 - 섬유산업 내수는 경기 부진, 민간소비 둔화, 섬유 및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둔화 등에 따른 수요 위축과 전년동기(8.8%) 실적 호조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2.4% 감소 전망
- (IT신산업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바이오헬스가 IT신산업군 내수 성장을 주도
-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경기 둔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출시 예정인 국산·외산 스마트폰의 교체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7.9% 증가 전망
 - 가전 내수는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 및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비 3.0% 감소 전망
 - 반도체 내수는 수요 비중이 높은 PC를 비롯하여 SSD 등 반도체 가공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큰 폭으로 감소한 -25.9% 증가율 기록
 - 디스플레이 내수는 OLED 설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소재·부품 수요 축소로 전년동기비 2.6% 감소 전망
 - 이차전지 내수는 국내 친환경차 세제지원 연장 조치에 따른 생산·판매 확대에 전년동기비 68.9% 증가한 6조 2,5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바이오헬스는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 확대, 신약 개발,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긍정적인 요인이 다수 존재하나 원료의약품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37.8%)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2.9% 증가 전망

〈표 2-7〉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륨차종인 중형 SUV와 세단 신차 출시 · 생산 정상화에 따른 차량 대기기간 단축 · 중견3사 국내 판매 전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및 차량 가격 상승으로 차량 구매비용 상승 · 누적된 차량 구매 대기수요 소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금리 및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역기지효과로 감소세 반전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인수 증가 · 중국으로부터 벌크선, 페리선 등 선박 인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인력 부족 및 노사갈등에 따른 생산 차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수가 증가하면서 내수 물량 증가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임기 내 250만 호) 정책 · 제조업 자동화 수요 및 친환경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 고효율 기기 등 친환경 설비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전반의 생산 감소 · 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에 따른 수요 산업 설비투자 지연 및 축소 · 주택 가격 하락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주력 제조업 전반의 경기 부진으로 내수 감소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용 후판 수요 견조 · 전년도 실적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 · 대다수 산업의 생산활동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대비 내수 부진이 예상되나 전년도의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 가능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데믹에 따른 항공유 중심 운송용 수요 확대 ·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용 수요 감소 · 유류세 환원 및 전기차 보급 확대 · 정체마진 변동성 확대에 따른 낮은 재고 수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유 및 나프타 수요는 확대되는 반면 산업용 수요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확대에 그칠 전망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이차전지 관련 중간재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전방산업 수출 부진 ·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감소 장기화 우려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정상화 및 외부 활동 증가에 의한 의류 수요 증가 · 온·오프라인 거래 동반 확대 ·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 확대 ·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수요 확대 · 하반기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기둔화, 금리 상승, 고물가,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요 증가세 둔화 · 수요산업의 생산 부진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요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및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섬유 내수 성장세 둔화
정보 통신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 영향 약화로 소비심리 개선 · 국산·외산 신제품 교체수요 증가 ·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데이터센터, 서버 등) 투자 회복 · 5G 특화망, 고도화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시장 포화 · 스마트폰 교체 주기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둔화 영향이 지속되나, 소폭 개선되고 신제품 교체수요가 작용하면서 확대 전망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 제품단가 상승 · 기저효과 ·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둔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 2021년, 2022년 상반기 최대 수요 달성에 따른 교체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심리 위축 및 교체수요 감소로 내수 감소세 유지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IoT 등 신산업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SSD 등 가공 제품 수출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수요가 일부 증가하지만, 채용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내수는 감소 추세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패널 생산 확대로 소재·부품 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ED 가동률 하락으로 소재·부품 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ED 생산 둔화로 인한 소재·부품 수요 부진으로 감소
이차 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 판매량 급증 · 전기차 신차 출시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경기둔화 본격화될 경우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수요산업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국내 이차전지 내수 역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바이오 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병 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만성질환 치료제 수요 증가 · 첨단 의료장비 도입 및 디지털 치료기 허가 확대 · 신·변종 바이러스의 계절적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수급 어려움 장기화 · 의약품 공급조절을 위한 약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시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와 암치료 기술 진보로 바이오헬스산업 내수는 증가

□ 생산: 조선(73.6%), 철강(4.1%),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해외 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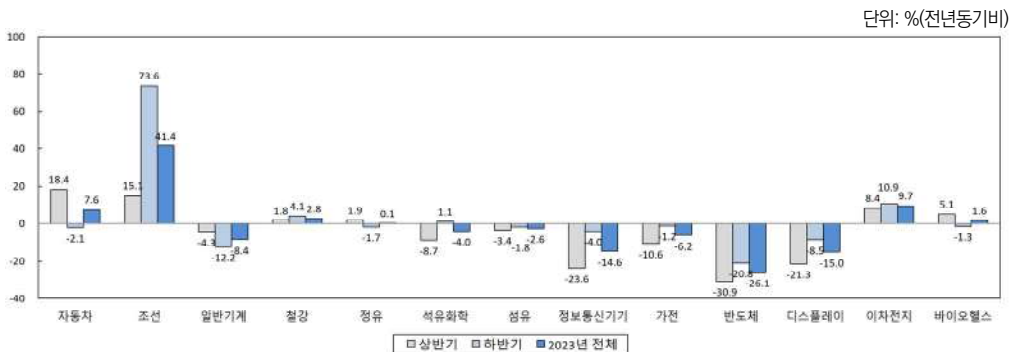
○ (기계산업군) 자동차(-2.1%)와 일반기계(-12.2%)는 내수 경기 둔화로 감소하나, 조선(73.6%)은 수주물량 본격 생산으로 큰 폭의 증가 전망

-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공급망 안정과 외자계 업체들의 생산모델 투입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내수 정체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동기비 2.1% 감소한 193만 대 기록 전망

- 조선은 선가가 높지 않았던 2020년 4분기에서 2021년 초에 대량으로 수주한 선박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전년동기비 73.6% 큰 폭의 증가 전망

- 일반기계 생산은 주요 수출 대상국 건설·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입수요는 증가하나, 내수경기 둔화 여파에 따른 기계류 재고율 상승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비 12.2% 감소 전망

〈그림 2-7〉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소재산업군) 철강(4.1%), 석유화학(1.1%)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정유(-1.7%), 섬유(-1.8%)는 대내외 수요 둔화로 감소 전망
 - 철강재 생산은 태풍 및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생산, 수출, 내수 모두 크게 부진했던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며 전년동기비 4.1% 증가 전망
 - 정유는 항공유 및 석유화학 제품용 석유제품 수요 증가가 생산 확대를 견인하겠으나, 전년동기(5.5%) 기저효과 및 수요 회복 둔화로 전년동기비 1.7% 소폭 감소 전망
 - 석유화학은 주요 석유화학제품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수출량(1.9%)도 증가하나, 내수 둔화와 낮은 재고소진율이 생산 증가 폭을 제한하여 전년동기비 1.1% 증가에 그칠 전망
 - 섬유는 첨단소재 생산 및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 부진 및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감소세(-1.8%) 지속
- (IT산업군)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부진, 해외생산 확대로 감소 전망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수출이 하반기에 회복세로 진입하고 내수도 증가(7.9%)로 전환하여 전년동기(-16.1%) 대비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4.0% 증가율 전망
 - 가전 생산은 프리미엄 제품 생산 비중의 확대와 설비 효율화 향상이 내수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내수 감소와 해외 생산 확대로 전년동기비 1.2% 감소 전망
 - 반도체 생산은 메모리 반도체 단가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감산을 결정하면서 전년동기비 20.8% 큰 폭의 감소 전망
 - 디스플레이 생산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전자제품 수요 회복 부진으로 가동률이 하락하여 전년동기비 8.5% 감소
 - 이차전지 생산은 대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생산라인 증설 등 설비투자 확대로 전년동기비 10.9% 증가한 6조 7,6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바이오헬스 생산은 2022년 3분기 이후 수요가 감소한 코로나 백신·치료제 대신 독감 백신·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위주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년동기비 1.3% 소폭 감소 전망

〈표 2-8〉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용 반도체 공급 정상화 등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 중견3사 신규 모델 생산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수출 및 내수 정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공급 정상화로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나 하반기 내수 및 수출 감소 등 부정적 요인 우세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이후 대량 수주물량의 본격 인도 고기술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LPG운반선 인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부족 완화에도 절대적인 기능인력 부족 및 중대재해 발생시 생산 차질 우려 해운시황 악화 및 러시아 제재로 인한 인도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이후 대량 수주물량의 본격 인도가 시작되면서 크게 증가하나, 생산인력 부족 완화에도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여 생산 차질 우려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국 건설·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지속 최근 3년간 EPC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기계부품류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고용 급증에 따른 공급 과잉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산업 생산감소 및 제조업 전반의 제한적 설비투자에 따른 기계류 수요 둔화로 생산감소 불가피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로 생산 정상화 유망 수요 대응 신제품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위주 경영 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하반기 생산 차질 정상화로 증가 예상되나 국내 수요 정체가 증가세를 제약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유 중심의 내수 및 수출 확대 석유화학용 석유제품 수요 확대 비OECD 국가의 수요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용 석유제품 내수 부진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정제마진 변동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 수출 부진으로 감소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스프레드 회복에 따른 가동률 상승 수출량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시설 가동률 상승, 수출 증가 내수 둔화, 재고 우선 소진으로 증가폭 제한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전환, 친환경 트렌드 대응 고부가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 냉감기능성 소재, 스판덱스 등 고성능 섬유소재 및 의류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및 내수 감소 해외 생산 지속 확대 및 역수입 증가 폐업 등 국내 생산 지속 감소 해외 중재가 섬유소재 및 의류 수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생산 감소
정보 통신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제품 출시와 수출 및 내수 개선 고급형 부품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데이터센터·클라우드 투자 위축 높은 해외 생산 비중, 현지 부품 조달 확대 중국 위탁생산(스마트폰 등) 비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감소세가 개선되고 신제품 수요에 힘입으면서 감소세가 완화될 전망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미엄 제품 생산 비중 증가 설비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개선 2022년 하반기 기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성장 둔화, 내수 감소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로 해외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 생산 증가로 국내 생산은 감소세 유지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DDR5 보급 본격화 서버 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서버용 수요 수요확대 대응을 위한 생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감소에 따라 생산 축소 메모리반도체 단가 안정화를 위한 인위적인 감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감소에 대응하고 메모리반도체 단가 안정을 위한 인위적인 감산을 시행하여 생산은 감소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OLED 양산 규모 확대 고부가 패널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경기둔화 지속으로 인한 전자제품 수요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제품 수요 축소로 인한 가동률 하락 전망
이차 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국내 생산 CAPA 확충 글로벌 배터리 수요 증가세 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IRA 배터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생산능력 확대, 국내외 배터리 수요 지속 등의 영향으로 이차전지 생산 증가 예상
바이오 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수요 증가 다국적 제약사와 백신 CMO 계약 체결 첨단의약품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인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내외 정치·경제·사회 리스크 확대 시 소비 위축, 생산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하반기 바이오헬스산업 생산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

□ 수입: 단가 하락 및 내수경기 둔화로 전년동기(2.9%) 증가에서 -4.9% 감소로 전환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1.2%)와 조선(20.8%)은 증가하지만, 일반기계(-9.2%)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비 3.5% 감소 전망

- 자동차 수입은 부품 수입 증가와 전동화, 초고가 차량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의 요인으로 전년동기비 1.2% 증가한 118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 전망

- 조선은 해외 건조 선박 인수와 해외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가스운반선 생산 증가, 해외로부터 선체·해양플랜트 블록 등의 수입 확대로 전년동기비 20.8% 증가 전망

- 일반기계는 제조업 전반의 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둔화로 전년동기비 9.2%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섬유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단가 하락과 내수 부진으로 3.0% 감소 전망

- 철강 수입 물량은 하반기 내수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5.9% 감소하고, 수입액은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비 4.3% 감소 전망

- 정유 수입 물량은 수요산업인 석유화학제품 생산 확대로 전년동기비 1.1%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수입액은 국제유가 하락 및 정제마진 감소로 7.1% 감소 전망

- 석유화학제품 수입량은 범용제품 중심으로 증가(6.9%)하지만,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은 전년동기비 1.4% 감소 전망

- 섬유 수입은 불경기 대응 증저가 의류 수요는 증가하나, 내수 경기 부진으로 증가세는 둔화하여 전년동기비 2.4% 증가 전망

○ (IT산업군) 이차전지(47.5%), 바이오헬스(13.3%)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10.1%) 증가에서 감소(-6.5%)로 전환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 하반기 수입은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외산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하여 상반기(-9.3%)보다 감소세가 완화된 2.2% 감소 전망

- 가전 수입은 국내 브랜드가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비 2.6% 감소 전망

- 반도체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와 가공단계의 웨이퍼 수입은 증가하지만,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 및 수출 부진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20.2% 감소 전망

〈그림 2-8〉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디스플레이 수입은 LCD 생산 중단에 따른 AS 및 재고 관리용 LCD 재수입 물량 축소로 전년동기비 5.2% 감소 전망
- 이차전지 하반기 수입은 전년도 하반기 증가율(57.0%)에는 미치지 못하나 국내 전기차 판매량 급증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47.5%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바이오헬스 수입은 바이오헬스산업 침체기를 벗어나 내수시장과 수출 회복으로 전년동기비 13.3%의 두 자릿수 증가율 유지

〈표 2-9〉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출시 · 고급차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완성차 고급브랜드 라인업 확대 · 자동차 할부금리 인상에 따른 차량구매비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고급화 및 안전옵션 강화로 부품이 증가하고 초고가 수입차량 구매가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가스운반선 생산 증가 · 해외로부터 선박 및 해양플랜트 블록의 반입 증가 · 국내 해운사가 중국 조선사에 발주한 벌크선, 페리선 등의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시황 둔화 및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중고선박 수입 감소 · 국산 기자재 탑재 노력을 통한 수입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해운사의 해외 건조 선박 인수 증가와 기자재 수입 증가로 하반기는 증가가 예상되나, 중고선 수입이 감소하면서 연간으로는 소폭 하락 전망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일반 기계	· 공장자동화 및 친환경 설비 제품류 수입 증가	· 제조업 전반의 생산 감소 · 소재부품 국산화에 따른 수입대체 지속 ·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입액 감소	· 제조업 전반의 생산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철강	· 중국의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확대	· 국내 내수 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 · 수입재 대응에 따른 국내 시장 경쟁 심화 · 국내 생산 정상화에 따른 대체 수요 소멸 · 전년동기비 큰 폭의 환율 하락	· 하반기 국내 수요 둔화 요인 우위로 수입 감소 예상
정유	·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설비 가동 및 기존 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 ·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수출 확대	·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감소로 인한 수입 단가 하락	· 수입 단가 하락이 수입액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석유 화학	· 기저효과 · 범용제품 중심 수입 증가	· 공급 과잉에 의한 수입단가 하락 · 내수 위축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폭 제한	· 수입량 증가 ·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 감소
섬유	· 해외 생산제품 역수입 증가 · 중저가 의류 수입 확대 · 국내 공급이 감소한 PF 일반사 수입 확대 · 수입단가 하락	·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섬유소재 수요 감소 ·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입수요 위축	· 불경기 대응 중저가 의류 수입 확대로 수입 확대
정보 통신 기기	· 외산 신제품 수요 증가 · 해외 생산제품 역수입 증가	· 소비심리 저하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 제품 가격 상승(고물가 등) · 내수 부진 및 재고 누적	· 외산 신제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감소 전망
가전	·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역수입 증가 ·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 확대로 해외 브랜드 제품 구매 증가	· 내수 부진 · 국내 브랜드 경쟁우위	· 내수 부진으로 수입은 감소세 유지
반도체	· 미·중 분쟁 심화로 중국에서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 단계의 반도체 수입이 증가 · 고가의 시스템반도체 수입 증가	· 전방산업 수요 둔화 · 국내 소비심리 악화 · 반도체 수출 감소로 중간 단계 웨이퍼 수입도 감소	·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으로 공정상 수입도 감소 · 국내 소비심리 악화로 시스템반도체 수입 감소
디스플레이	· 패널 가격 상승 · 차량용 디스플레이 규모 확대	· LCD 생산 중단으로 인한 재수입 물량 축소	· LCD 재수입 축소로 감소 전망
이차 전지	· 국내 전기차 판매량 증가 지속으로 이차전지 수요 확대 · 중국으로부터 수입 급증세 지속	·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안정화	·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증가로 수입물량 급증 예상되나 수입단가 하락 가능성으로 전년 하반기 증가율(57.0%)보다 소폭 하락한 47.5%를 기록할 전망
바이오 헬스	· 국내 바이오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증가로 관련 소부장 수입 증가 · 바이오헬스산업 고도화 정책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용품 및 진단·검사 장비 수입 증가 · 백신, 만성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 수입 증가	· 전 세계적인 의약품 공급 부족, 원가 상승 ·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 국내 산업생태계의 외연 확장으로 수입 증가세 회복

〈표 2-10〉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69,240 (23.6)	36,126 (2.6)	41,257 (21.2)	77,383 (11.8)	45,971 (27.3)	41,350 (0.2)	87,322 (12.8)
조선	22,988 (16.4)	8,241 (-30.5)	9,937 (-10.7)	18,178 (-20.9)	9,864 (19.7)	14,988 (50.8)	24,852 (36.7)
일반기계	50,073 (4.6)	26,207 (5.7)	24,892 (-1.5)	51,099 (2.0)	26,265 (0.2)	24,805 (-0.3)	51,070 (-0.1)
철강	36,367 (36.9)	20,754 (26.8)	17,694 (-11.5)	38,448 (5.7)	19,063 (-8.1)	18,374 (3.8)	37,437 (-2.6)
정유	38,121 (57.7)	30,643 (91.0)	32,230 (46.0)	62,873 (64.9)	25,625 (-16.4)	24,983 (-22.5)	50,608 (-19.5)
석유화학	55,092 (54.8)	30,258 (16.6)	24,057 (-17.5)	54,316 (-1.4)	23,997 (-20.7)	24,080 (0.1)	48,077 (-11.5)
섬유	12,807 (14.0)	6,470 (5.6)	5,831 (-12.7)	12,301 (-4.0)	5,590 (-13.6)	5,480 (-6.0)	11,070 (-10.0)
정보통신기기	33,557 (23.8)	18,811 (27.1)	16,056 (-14.4)	34,867 (3.9)	11,610 (-38.3)	13,868 (-13.6)	25,478 (-26.9)
가전	8,669 (24.1)	4,351 (6.2)	3,676 (-19.6)	8,027 (-7.4)	3,965 (-8.9)	3,710 (0.9)	7,675 (-4.4)
반도체	127,980 (29.0)	69,018 (20.8)	60,202 (-15.0)	129,220 (1.0)	44,785 (-35.1)	52,477 (-12.8)	97,262 (-24.7)
디스플레이	21,385 (18.9)	10,815 (17.5)	10,334 (-15.2)	21,149 (-1.1)	7,343 (-32.1)	10,251 (-0.8)	17,595 (-16.8)
이차전지	8,672 (15.5)	4,732 (9.8)	5,249 (20.4)	9,981 (15.1)	5,238 (10.7)	5,732 (9.2)	10,970 (9.9)
바이오헬스	16,231 (17.1)	10,000 (29.3)	7,705 (-9.3)	17,705 (9.1)	7,631 (-23.7)	7,986 (3.6)	15,616 (-11.8)
13대 합계	501,182 (27.2) <77.8>	276,426 (18.3) <78.9>	259,120 (-3.2) <77.8>	535,547 (6.9) <78.3>	236,947 (-14.3) <77.4>	248,084 (-4.3) <78.6>	485,032 (-9.4) <78.0>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안은 전체 수출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1〉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2,041 (8.2)	1,073 (1.4)	1,227 (24.9)	2,300 (12.7)	1,399 (30.4)	1,221 (-0.5)	2,620 (13.9)
조선 (만 CGT)	869 (27.4)	358 (-30.9)	293 (-16.5)	651 (-25.1)	418 (16.8)	493 (68.3)	911 (39.9)
일반기계 (십억 원)	57,271 (1.0)	32,287 (16.5)	34,102 (15.4)	66,389 (15.9)	35,274 (9.3)	32,123 (-5.8)	67,397 (1.5)
철강 (천 톤)	27,113 (-6.1)	13,143 (-5.0)	12,543 (-5.5)	25,686 (-5.3)	13,303 (1.2)	12,973 (3.4)	26,277 (2.3)
정유 (십만 배럴)	4,466 (-4.7)	2,338 (13.3)	2,632 (9.6)	4,970 (11.3)	2,452 (4.9)	2,605 (-1.0)	5,057 (1.8)
석유화학 (천 톤)	38,450 (3.9)	19,130 (3.6)	17,753 (-11.2)	36,883 (-4.1)	17,927 (-6.3)	18,091 (1.9)	36,017 (-2.3)
섬유 (십억 원)	14,656 (10.6)	8,008 (17.0)	8,402 (7.6)	16,410 (12.0)	7,214 (-9.9)	6,676 (-20.5)	13,890 (-15.4)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38,366 (19.9)	23,282 (40.7)	25,210 (15.5)	48,492 (26.4)	16,951 (-27.2)	18,846 (-25.2)	35,797 (-26.2)
가전 (십억 원)	9,924 (20.8)	5,386 (17.6)	5,297 (-0.9)	10,683 (7.7)	5,117 (-5.0)	4,520 (-14.7)	9,637 (-9.8)
반도체 (십억 원)	146,668 (25.3)	85,424 (33.7)	86,751 (4.8)	172,175 (17.4)	57,795 (-32.3)	63,933 (-26.3)	121,728 (-29.3)
디스플레이 (십억 원)	24,529 (15.4)	13,380 (30.1)	14,891 (4.6)	28,271 (15.3)	9,477 (-29.2)	12,489 (-16.1)	21,966 (-22.3)
이차전지 (십억 원)	9,912 (11.8)	5,855 (21.5)	7,564 (48.4)	13,419 (35.3)	6,760 (15.5)	6,983 (-7.7)	13,682 (2.0)
바이오헬스 (십억 원)	19,242 (17.7)	13,908 (51.7)	10,716 (6.4)	24,624 (28.0)	9,572 (-31.2)	10,017 (-6.5)	19,589 (-20.4)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 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2〉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1,726 (-8.5)	808 (-11.3)	879 (7.8)	1,686 (-2.3)	884 (9.4)	868 (-1.2)	1,752 (3.9)
조선 (만 CGT)	216 (-26.5)	77 (-43.4)	62 (-22.5)	139 (-35.6)	82 (6.5)	132 (112.9)	214 (54.0)
일반기계 (십억 원)	114,436 (20.4)	53,360 (-9.0)	58,708 (5.2)	112,067 (-2.1)	48,990 (-8.2)	48,930 (-16.7)	97,920 (-12.6)
철강 (천 톤)	56,041 (13.9)	27,744 (-0.4)	23,432 (-16.9)	51,176 (-8.7)	28,594 (3.1)	24,035 (2.6)	52,629 (2.8)
정유 (십만 배럴)	11,096 (6.9)	5,592 (4.1)	5,548 (-3.0)	11,140 (0.4)	5,586 (-0.1)	5,489 (-1.1)	11,075 (-0.6)
석유화학 (천 톤)	11,216 (5.5)	5,734 (-1.7)	5,387 (0.1)	11,120 (-0.8)	5,012 (-12.6)	5,140 (-4.6)	10,152 (-8.7)
섬유 (십억 원)	62,451 (-8.3)	29,824 (-3.5)	34,305 (8.8)	64,129 (2.7)	30,122 (1.0)	33,477 (-2.4)	63,598 (-0.8)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1,591 (3.6)	24,744 (-3.2)	23,193 (-10.9)	47,937 (-7.1)	25,954 (4.9)	25,020 (7.9)	50,974 (6.3)
가전 (십억 원)	31,568 (3.5)	15,925 (2.2)	14,659 (-8.3)	30,584 (-3.1)	14,282 (-10.3)	14,226 (-3.0)	28,508 (-6.8)
반도체 (십억 원)	63,243 (4.1)	32,831 (3.8)	36,737 (16.2)	69,568 (10.0)	30,045 (-8.5)	27,236 (-25.9)	57,281 (-17.7)
디스플레이 (십억 원)	36,835 (-5.2)	16,620 (-8.2)	14,513 (-22.5)	31,133 (-15.5)	14,026 (-15.6)	14,141 (-2.6)	28,167 (-9.5)
이차전지 (십억 원)	4,984 (14.3)	3,001 (50.9)	3,699 (22.7)	6,922 (39.0)	5,032 (67.7)	6,247 (68.9)	11,377 (64.4)
바이오헬스 (십억 원)	38,368 (17.5)	23,409 (28.5)	27,760 (37.8)	51,169 (33.4)	25,650 (9.6)	28,564 (2.9)	54,214 (6.0)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 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3〉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3,462 (-1.3)	1,779 (-2.0)	1,978 (20.0)	3,757 (8.5)	2,106 (18.4)	1,937 (-2.1)	4,043 (7.6)
조선 (만 CGT)	1,052 (18.6)	430 (-32.1)	352 (-16.0)	782 (-25.7)	495 (15.1)	611 (73.6)	1,106 (41.4)
일반기계 (십억 원)	135,757 (15.2)	66,244 (-3.9)	71,009 (6.2)	137,253 (1.1)	63,395 (-4.3)	62,346 (-12.2)	125,741 (-8.4)
철강 (천 톤)	73,667 (4.7)	36,170 (-2.1)	31,634 (-13.8)	67,804 (-8.0)	36,806 (1.8)	32,923 (4.1)	69,729 (2.8)
정유 (십만 배럴)	11,638 (0.4)	6,084 (8.4)	6,356 (5.5)	12,440 (6.9)	6,201 (1.9)	6,250 (-1.7)	12,450 (0.1)
석유화학 (천 톤)	22,309 (4.4)	11,578 (6.6)	10,568 (-7.7)	22,146 (-0.7)	10,567 (-8.7)	10,683 (1.1)	21,250 (-4.0)
섬유 (십억 원)	56,141 (-9.8)	26,338 (-7.7)	27,413 (-0.7)	53,750 (-4.3)	25,450 (-3.4)	26,910 (-1.8)	52,360 (-2.6)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2,726 (6.7)	27,706 (12.6)	23,573 (-16.1)	51,279 (-2.7)	21,172 (-23.6)	22,626 (-4.0)	43,798 (-14.6)
가전 (십억 원)	31,204 (4.6)	15,766 (4.7)	14,096 (-12.7)	29,862 (-4.3)	14,089 (-10.6)	13,922 (-1.2)	28,011 (-6.2)
반도체 (십억 원)	139,591 (17.9)	74,136 (14.4)	67,120 (-10.2)	141,256 (1.2)	51,253 (-30.9)	53,127 (-20.8)	104,380 (-26.1)
디스플레이 (십억 원)	58,061 (3.3)	27,417 (1.8)	26,983 (-13.3)	54,400 (-6.3)	21,577 (-21.3)	24,689 (-8.5)	46,266 (-15.0)
이차전지 (십억 원)	10,705 (-1.4)	5,774 (9.5)	6,098 (12.3)	11,872 (10.9)	6,259 (8.4)	6,765 (10.9)	13,024 (9.7)
바이오헬스 (십억 원)	34,123 (13.9)	18,114 (7.4)	20,917 (21.2)	39,031 (14.4)	19,034 (5.1)	20,641 (-1.3)	39,674 (1.6)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 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4〉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20,492 (10.2)	10,436 (-3.3)	11,697 (20.6)	22,133 (8.0)	12,014 (15.1)	11,832 (1.2)	23,846 (7.7)
조선	3,648 (6.1)	1,634 (-3.1)	1,531 (-22.0)	3,165 (-13.2)	1,237 (-24.3)	1,849 (20.8)	3,086 (-2.5)
일반기계	31,433 (9.6)	15,749 (1.1)	15,913 (0.4)	31,662 (0.7)	15,539 (-1.3)	14,445 (-9.2)	29,984 (-5.3)
철강	24,454 (50.1)	13,815 (29.9)	11,132 (-19.4)	24,947 (2.0)	12,660 (-8.4)	10,650 (-4.3)	23,310 (-6.6)
정유	24,085 (85.9)	14,180 (45.4)	12,529 (-12.6)	26,709 (10.9)	11,178 (-21.2)	11,642 (-7.1)	22,820 (-14.6)
석유화학	14,655 (36.1)	7,893 (6.6)	6,424 (-11.4)	14,317 (-2.3)	5,884 (-25.5)	6,334 (-1.4)	12,218 (-14.7)
섬유	18,299 (12.9)	9,287 (12.6)	10,614 (5.6)	19,901 (8.8)	9,210 (-0.8)	10,870 (2.4)	20,080 (0.9)
정보통신기기	32,564 (18.6)	16,418 (4.9)	16,046 (-5.1)	32,464 (-0.3)	14,886 (-9.3)	15,699 (-2.2)	30,585 (-5.8)
가전	9,001 (19.1)	4,480 (-1.9)	4,067 (-8.3)	8,547 (-5.1)	4,114 (-8.2)	3,960 (-2.6)	8,074 (-5.5)
반도체	61,362 (22.0)	35,646 (30.0)	39,117 (15.3)	74,763 (21.8)	28,351 (-20.5)	31,225 (-20.2)	59,576 (-20.3)
디스플레이	2,883 (-12.8)	2,087 (59.2)	1,680 (6.9)	3,767 (30.7)	1,492 (-28.5)	1,593 (-5.2)	3,085 (-18.1)
이차전지	3,666 (82.9)	2,490 (81.3)	3,599 (57.0)	6,089 (66.1)	4,287 (72.2)	5,307 (47.5)	9,594 (57.6)
바이오헬스	19,812 (22.6)	13,807 (55.6)	12,625 (15.4)	26,432 (33.4)	12,905 (-6.5)	14,302 (13.3)	27,207 (2.9)
13대 합계	266,354 (24.6) <43.3>	147,922 (20.0) <41.0>	146,974 (2.9) <39.7>	294,896 (10.7) <40.3>	133,757 (-9.6) <39.9>	139,708 (-4.9) <43.4>	273,465 (-7.3) <41.6>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안은 전체 수입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5〉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297 (1.6)	139 (-13.8)	163 (19.5)	302 (1.5)	145 (4.7)	153 (-6.3)	298 (-1.2)
조선 (만 CGT)	33 (-62.9)	5 (-76.2)	3 (-75.0)	8 (-75.8)	5 (0.0)	14 (366.7)	19 (137.5)
일반기계 (십억 원)	35,951 (6.0)	19,403 (11.4)	21,801 (17.6)	41,204 (14.6)	20,869 (7.6)	18,707 (-14.2)	39,575 (-4.0)
철강 (천 톤)	9,487 (23.5)	4,717 (-0.6)	4,343 (-8.4)	9,059 (-4.5)	5,091 (7.9)	4,086 (-5.9)	9,177 (1.3)
정유 (십만 배럴)	3,923 (12.9)	1,846 (1.2)	1,824 (-13.0)	3,671 (-6.4)	1,837 (-0.5)	1,845 (1.1)	3,682 (0.3)
석유화학 (천 톤)	10,226 (-5.5)	4,781 (-13.2)	4,207 (-10.8)	8,988 (-12.1)	4,433 (-7.3)	4,498 (6.9)	8,931 (-0.6)
섬유 (십억 원)	20,967 (9.9)	11,495 (24.6)	15,295 (30.2)	26,789 (27.8)	11,886 (3.4)	13,243 (-13.4)	25,128 (-6.2)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37,230 (14.9)	20,320 (16.1)	24,830 (25.9)	45,150 (21.3)	21,734 (7.0)	21,239 (-14.5)	42,973 (-4.8)
가전 (십억 원)	10,287 (15.5)	5,545 (8.6)	5,860 (13.1)	11,405 (10.9)	5,309 (-4.3)	4,824 (-17.7)	10,133 (-11.2)
반도체 (십억 원)	70,320 (18.5)	44,119 (43.9)	56,368 (42.1)	100,487 (42.9)	36,587 (-17.1)	38,041 (-32.5)	74,628 (-25.7)
디스플레이 (십억 원)	3,303 (-16.0)	2,583 (76.3)	2,421 (31.8)	5,004 (51.5)	1,926 (-25.4)	1,940 (-19.9)	3,866 (-22.7)
이차전지 (십억 원)	4,191 (77.2)	3,082 (100.8)	5,165 (92.7)	8,469 (102.1)	5,532 (79.5)	6,466 (25.2)	12,035 (42.1)
바이오헬스 (십억 원)	23,487 (23.2)	19,203 (82.5)	17,559 (35.4)	36,762 (56.5)	16,189 (-15.7)	17,940 (2.2)	34,129 (-7.2)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 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연구진

거시 경제	총괄 및 국내경제	홍성욱 연구위원	(044) 287-3192
		강두용 선임연구위원	(044) 287-3205
	세계경제	민성환 선임연구위원	(044) 287-3127
		이원복 부연구위원	(044) 287-3126
	유가 및 환율	이소라 부연구위원	(044) 287-3711
		김현석 부연구위원	(044) 287-3670
		강성우 연구위원	(044) 287-3677
	소비	박성근 연구위원	(044) 287-3172
	투자	김태훈 부연구위원	(044) 287-3627
	수출	김정현 전문연구위원	(044) 287-3918
한정민 연구위원		(044) 287-3291	
13대 주력 산업	총괄	박상수 연구위원	(044) 287-3830
	자동차	김경유 선임연구위원	(044) 287-3125
	조선	이은창 연구위원	(044) 287-3198
	일반기계	박상수 연구위원	(044) 287-3830
	철강	이재윤 연구위원	(044) 287-3829
	정유	최동원 부연구위원	(044) 287-3144
	석유화학	조용원 연구위원	(044) 287-3079
	섬유	이임자 연구위원	(044) 287-3108
	정보통신기기	김종기 선임연구위원	(044) 287-3106
	가전	심우중 전문연구위원	(044) 287-3024
	반도체	김양평 전문연구위원	(044) 287-3282
	디스플레이	남상욱 부연구위원	(044) 287-3190
	이차전지	황경인 부연구위원	(044) 287-3081
	바이오헬스	정지은 부연구위원	(044) 287-3293